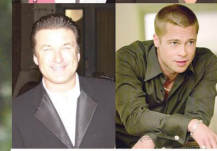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73호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 새로운 위성 채널-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특별 보도

☞ '평화를 구하는 자', 27회 테리상 은상 수상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해외의 불우한 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포모사
☞ 2호차' 소방관들-작은 선행에서 위대한 비전으로

채식 시대

☞ 채식주의를 통해 자비로운 신의 길을 따르라
☞ 채식 미인이 한층 심오한 가치관을 일깨우다
☞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완전 채식 요법



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새 위성 채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영광된 마음으로 새 위성 채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소개합니다. 이 채널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방송합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전 유럽에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유일한 TV 채널로서 영성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일부입니다.

주목할 뉴스:

지구 각지의 긍정적인 최신 뉴스 보도.

지혜의 말씀:

청하이 무상사의 통찰력 있는 강연.

예술과 영성:

전 세계의 생생하고 활기찬 공연을 소개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고귀한 생활-채식:

건강하고 맛있는 채식 요리를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채식 요리 프로그램.

동물의 세계: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법을 보여주는 가슴 훈훈한 프로그램.

스승과 제자 사이:

일상생활에서 우주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관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솔직담백한 대화

깨달음이 있는 문화 예술:

영혼을 고양시키고 정신을 살지게 하는 흥미로운 인터뷰, 감동적인 영화 및 다큐멘터리.

채널 정보

핫버드 6 위성(Hotbird 6)

위치: 동경 13도(13° E)

트랜스폰더(Transponder): 117

주파수: 10853MHz

분극: 수평

심벌 레이트(Symbol Rate): 27500

FEC: 3/4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첫 방송

관련 문의는 info@suprememastertv.com

또는 1-626-444-4385로 연락해 주세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suprememastertv.com>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688

<영어+말레이어 통역+21개 국어 자막이 들어간 재판본>

사랑은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2000. 4. 30.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강연

주요 내용:

왜 전능하신 신은 인류가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가?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각 개인의 운명이 판이하게 다른 까닭은? 관음법문에 입문하거나 방편법을 수행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이 강연에서 스승님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에는 서로 다른 많은 선택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 부처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G12 <중국어>

남에게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을 보시하라

1988. 11. 29. 포모사 타이베이 단체명상

주요 내용:

깨달은 스승이 어떤 나라에 와서 진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국민에게 불보살의 은총이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성불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성인들을 본받아 인의예지신을 갖춘 참된 군자가 되도록 일깨우신다. 생일과 결혼은 기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이 행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결혼 잔치는 동물들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을 축하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입문한 뒤에는 5대 조상이 천도되는데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런 풍속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73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7년) 2월 10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러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2/ 5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새로운 위성 채널-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예술과 영성-인디펜던트 TV에서 전국으로 방영된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 3/ 81 **영혼의 고향**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책
- 8 **신기한 감응**
순수한 기쁨과 사랑의 바다
- 9 **특별 보도**
'평화를 구하는 자', 제27회 텔라상 은상 수상
- 12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대한민국/ 포모사
- 20 **수행의 길목에서**
책 기증 활동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다
- 21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해외의 불우한 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포모사/ '2호자' 소방관들-작은 선행에서 위대한 비전으로
- 23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후대를 이롭게 하는 나눔의 정신
- 24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헤즈볼라 게릴라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돌이켜보며
- 25 **매체 보도**
신의 축복이 영국의 태도를 바꿔 놓다
- 26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한 사막
- 28 **황금시대의 과학기술**
전도 유망한 녹색 연료 자원
- 29 **수행 일화**
모두 수행하고 성인이 되는 시대
- 3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성공을 성취할 소중한 기회를 귀하게 여기라/ 우리는 진정 신의 자녀이다
- 32 **관음 웹사이트**
- 35 **채식 시대**
채식주의를 통해 자비로운 신의 길을 따라라/ 채식 미인이 한층 심오한 가치관을 일깨우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완전 채식 요법
- 40 **이야기 세상**
채식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은퇴식
- 41 **무상 예술**
젊음·유형·기쁨·낭만·편안함-모든 것을 갖춘 천의
- 46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 57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온 세상엔 단 한 분의 스승으로 충분하다/ 살아 있는 스승께 입문하고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다/ 과학·종교·자비/ 깨달음이 전쟁을 막는 최상의 방책이다/ 영적인 지혜는 세속적인 지력을 훨씬 능가한다/ 자연스러운 영적 깨달음이 허상의 체험보다 낫다
- 62 **신의 사랑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스스로 수양한 후에야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 스승님의 일에 참여한 후 거둔 난 탕아
- 6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등급따라 이에 수준도 다르다

66 **스승님 말씀**
지혜를 사용하여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라

67 **동물의 감성 세계**
'의사 개'가 요양원에 웃음을 가져오다/ 서로 다른 종족의 동물 친구들이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다

70/ 73 **스승님의 농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한 세대를 뛰어넘어 갇아 주는 달콤한 복수

71 **어둠 속의 등대**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을 걷다

74 **사랑의 실전**
포모사

76 **전세계 연락처**

80 **양서 입문**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삶을 살자: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82 **스승님의 사진 그림**
여름



예술과 영성

인디펜던트 TV에서 전국으로 방영된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스승님이 1993년 3월 2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하신 대중 강연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가 미국 인디펜던트 TV(i:Independent Television)를 통해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특별 3부작 시리즈로 전국에 방영됐다. 마지막 제3부가 방송된 후 미국 전역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하는 신실한 구도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 강연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법문과 다른 법문의 차이점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되 그것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어떤 비용도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줍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을 매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해서 자신의 지혜를 누리고 그런 후엔 과거·현재·미래의 어떤 스승을 노예처럼 섬기는 대신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리사(Lisa)라는 여성은 깨달음에 관심 있다면서 스승님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초월한 상태였는데 이날 TV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본 후 스승님이 수행의 길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한다. 조지아의 래키(Lackey) 씨도 전화를 걸어 영성의 우주적 연결성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 때문에 깨



달음을 주는 스승님의 법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주리의 다니엘(Daniel) 여사는 그동안 내면 깊숙이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진리를 전하는 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토록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구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구해 왔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일 주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유행 따라 변하는 옷들로 가득한 옷장과 매일 배를 채우는 햄과 닭고기 같은 것들이 고작입니다. 죽을 땀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힘들게 일해야 하냐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대함을 알기 위한 시간을 조금 남겨 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대한 힘을 사용하면 8시간씩의 일을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며,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더욱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가졌던 질문인데, 기존 종교에선 해답을 찾지 못 했어요.” 다니엘 여사는 말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최근에 『천사 인도하기(Guiding Angels)』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쓰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녀가 가진 내면의 갈망을 적고 나서 TV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우연의 일치란 걸 믿지 않아요.” 그녀는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어 스승님과 명상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물었다. 이는 마치 ‘당신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과 같았다.

일주일 내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 뒤에 전화를 걸어 온 플로리다의 에스티노(Estino) 여사는 대뜸 “칭하이 무상사께 입문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페루에 사는 친구로부터 스승님에 관해 처음으로 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아들은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데이토너 비치(Daytona Beach)에 사는 언니가 전화를 걸어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을 보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무상사에 관한 거라고 말해 주었다. 에스티노 여사는 예전에 스승님에 관해서 언니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어나면 좋은 기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날은 그게 매우 어려워요. 저는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의 배자(Vezza) 씨는 전에 ‘예술과 영성’ 아프리카편 예고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서야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고편에서 나왔던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 ‘예술과 영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그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처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력을 부정적인 면에 둘수록 부정적인 결과들을 얻게 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 부분에는 우리 협회 회원이자 몽골이 낳은 국제적인 가수인 노민진(Nominjin)이 작사하고 노래한 수행 가곡 ‘놀랍지 않아요(Ain't It Wonderful)’가 방송됐다. 노민진은 7개의 차트 1위 곡을 낸 가수로 2005년 몽골 최고의 가수로 뽑혔으며, EMI/ Virgin 레코드사에서 제작해 전세계로 발매한 존 레논(John Lennon)의 뮤직 비디오 리믹스버전 ‘평화에게 기회를 주세요(Give Peace a Chance)’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몇몇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놀랍지 않아요’의 영적 기

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지아의 허드슨(Hudson) 여사도 우리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했다.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뛰어났어요!” 그녀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TV를 끄려던 참에 우리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면서 “프로그램을 보고 매료되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노래 ‘놀랍지 않나요’의 음악이 아주 맘에 들었고 매우 평화로웠다고 덧붙이면서 나중에는 스승님과 스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물었다. 켄터키 주의 한 단골 시청자는 스승님의 음악과 노민진의 노래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했다. 그녀는 ‘예술과 영성’에서 방송된 적이 있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를 기억하고 있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많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림·음악·시·인테리어 디자인·패션 디자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가 신과 영성에 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도록 고양시키신다. 스승님의 최신 그림인 ‘양약(Medicine)’ ‘점화(Igniting)’, ‘천국의 선물(Heaven’s Gift)’도 ‘예술과 영성’의 ‘무상 예술’ 편에서 소개되었다.


플로리다 주의 버스틸로(Bustilo) 여사는 ‘예술과 영성’을 몇 차례 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최신 그림과 만세등, 기타 예술작품을 매우 좋아했으며 몇 주 전에 방송되었던 노래 ‘한밤의 꿈(Dream in the Night)’을 아주 좋아했다. 그녀는 앉아서 명상함으로써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버스틸로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해요. 스승님의 강연과 노래를 틀어 놓으면 스승님의 목소리와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승님이 온 집안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청하이 무상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깨달은 후에는 세속적인 면과 영성 면에서 모두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위대한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본모습을 보이고 내면의 잠재된 능력을 활용하세요.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는데, 예전에는 못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러니 보세요. 깨달은 후에 나는 어떤 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순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도에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할 뿐이죠.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시를 받거나 재정적 도움을 요구할까 봐 걱정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자비롭고 다재다능한 스승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진정 축복 받은 존재들이다. 스승님은 우리를 다시 신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주의 지혜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다.

스승님은 이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우셨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뚝 서서 신의 길을 가고 깨달음과 지혜를 지니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상의 분위기를 더욱 더 밝혀야 합니다.”

자비로운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축복을 통해 세상과 인류가 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길 기원하는 바이다! 

순수한 기쁨과 사랑의 바다

사히드 마무드 사형/ 영국 입스위치 (원문 영어)


부드럽고 기분 좋은 빗줄기가 고동치는 둥근 공과 같은 의식에서 퍼져 나와 무한하고 순수한 기쁨의 바다를 광속으로 헤엄쳐 나갔다. 나는 간신히 수면 아래서 회전하며 떠다니다 솟구쳐 올랐지만 받은 나옴과 받은 잠긴 채 물 속을 빙빙 돌았다. 그 공이 나를 떠받쳐 주었고 뗏목까지 정화시키는 그 본질이 내 영혼에 스며들었다. 나는 부드럽게 소용돌이치며 회전하였고 내 중심부에서 빗줄기가 뿜어 나와 안개 낀 날 구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의 빗줄기처럼 온 사방을 비쳤다.

사방이 온통 기쁨이었고 나는 절대적인 기쁨 속에 잠겼다. 여태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 진동, 이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감동시켰고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이 느낌은 내가 상상했던,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미묘하고 아름다웠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깊은 평안함보다 10억 배나 더 평화로웠다.

나는 고향에 도착했다. 그곳은 정토(淨土), 내 진정한 고향의 변두리였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창조자를 만들 것이었다. 이런 변형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 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그 어느 것도 그대로인 것은 없었으며 나는 이제 자유였다. 나는 스승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제 모든 것이 중요성을 잃은 듯했다. 나의 사랑과 관용은 천 배로 커졌다. 나는 누구에게 화를 낸다거나 언짢아하거나 분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사실 이런 단어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다. 심지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다. 사실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나의 관대함은 절대적이 되었고 의구심이 없었으며 확고해졌다. 내 사랑과 창조의 힘은 우주를 가득 채웠다. 나는 스승님께서 나를 항상 이곳에 데려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그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나의 온몸이 순백색의 빗줄기 속으로 녹아들었고 완전히 고양되었다. 처음의 일부 경험을 제외하곤 나의 두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말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를 초월하고 관념의 세계를 훨씬 초월한 것이었다. 순수하고 깊은 평화와 매우 가볍고 생생한 느낌만이 천국 영혼의 향기처럼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 떠돌고 있을 뿐이다. 나의 말은 아름답고 신비한 노래처럼 달콤하고 친절해졌고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내가 바뀌었던 진정한 평화와 서로 연결시켰다. 거칠고 더럽고 조잡한 힘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사랑의 쓰나미, 기쁨의 해일이 모든 것을 씻어 내렸고 큰 물결들로 온 우주를 겹겹이 에워쌌으며 우주의 모습을 보일 듯 말 듯하게 영원토록 바뀌어 나갔다.

내 가슴속에는 사랑·기쁨·평화·관용·행복·감사의 마음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이 체험을 통해 위대한 창조주의 크나큰 축복과 은총을 느끼길 희망했다. 

‘평화를 구하는 자’

제27회 텔리상 은상 수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보도 (원문 영어)

옛날 옛적,
진실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가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었다네.
지구와 해와 달 그리고 구름 위를 걷다가
마침내 발견했네,
모든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숨겨져 있음을.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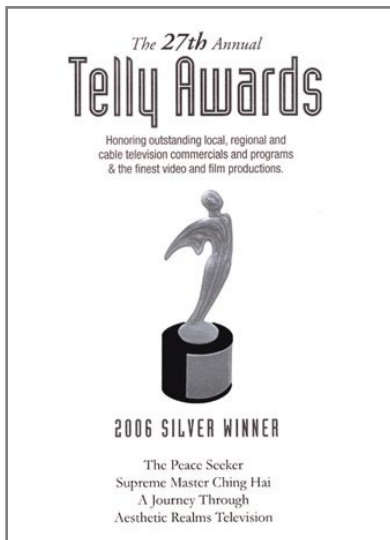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편곡한 ‘평화를 구하는 자’가 제27회 텔리상 은상을 수상하다.



에미(E Emmy)상과 클리오(Clio)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이비드 카터(David E. Carter)가 1978년에 설립한 텔리상(Telly Award)은 유선 방송, 광고, 비디오, TV 프로그램 등 각 지역의 우수한 분야에 수여되는 상이다. 국제적인 대기업에서 지방 제작사와 광고 기획사에 이르기까지 텔리상은 이 분야 관계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가운데 하나다. 금년에는 미국 50개 주와 전세계 5개 대륙 30여 국가에서 1만 3천 점이 넘는 작품이 후보에 올라 각축을 벌였다. 텔리상 수상작은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제작사와 TV 방송국, 유선 방송업자, 광고기획사, 비디오 회사들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올해 수상자에는 CNN,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MSNBC, NBA 엔터테인먼트(NBA Entertainment), NBC 유니버설 글로벌 네트워크(NBC Universal Global Network), 니켈로데온(Nickelodeon), 바이오그래피 채널(Biography Channel), 히스토리 채널(History Channel)이 포함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23일 칭하이 무상사의 ‘평화를 구하는 자(The Peace Seeker)’가 제27회 텔리상 텔레비전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인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로 '평화를 구하는 자'에 수여하는 텔리상을 받고 있는 협회 회원과 '영성과 예술' 진행자, 레커그니션 미디어(Recognition Media: 텔리상 제작사)의 로저 버먼(Rodger Berman) 사장(왼쪽부터).



텔리상 상장의 내용

제27회 텔리상
뛰어난 지역 유선방송 광고물과 프로그램
및 가장 훌륭한 영화 작품을 표창함
2006 은상 수상 작품
'예술과 영성' 텔레비전
칭하이 무상사의 '평화를 구하는 자'.

에서 텔리 은상을 수상한 것이다. 텔리 은상을 받으려면 총 1만 3천여 후보 가운데서 10%도 안 되는 비율 안에 들어야 하니 은상의 영광을 안은 것은 실로 대단한 명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에는 시인 내면의 자비심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프레드 칼린(Fred Karlin: 대표곡 'For All We Know', 'Come Saturday Morning', 영화 '나, 너 그리고 우리 [Yours, Mine, and Ours]'의 음악)이 스승님의 아름다운 시에서 영감을 얻어 그 시에 곡을 붙여 뛰어난 명작 '평화를 구하는 자'를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쉬라인 강당에서 개최된 자선 콘서트 '평화의 음악, 하나된 세상(One World ... of peace through music)'에서 공연되었다. '평화를 구하는 자'는 청중을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감명 깊은 교향시이다. 이 공연에는 가수 멜 큐빅(Mel Kubik), 니콜 캠벨(Nicole Campbell), 스티비 머서(Stevie Mercer)와 배우 제롬 스미스 목사(Reverend Jerome Smith), 로리 존슨(Laurie Johnson), 클러린더 로스(Clarinda Ross), 수상 경력이 있는 지휘자 피터 보이어(Peter Boyer), 그리고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사데나 소년 합창단(Pasadena Boys Choir) 등 재능 있는 출연진이 참여했다. 또한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주하는, 존경받는 65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다.

오스카상 수상 작곡가 알프레드 뉴먼(Alfred Newman)의 딸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작곡가인 마리아 뉴먼(Maria Newman)에게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인상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가와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수많은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칭하이 무상사의 경우엔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방면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창작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 예술 작품 속에서도 음악을 창조해 냅니다.”

이 자선 콘서트의 진행은 35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다재다능한 슈퍼스타 데비 레이놀즈(Debbie Reynolds)와 빨리 말하기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존 모취타(John Moschitta)가 맡았다.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곡가 빌 콘티(Bill Conti: ‘록키[Rocky]’, ‘007 포 유어 아이즈 온리[For Your Eyes Only]’,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The Thomas Crown Affair]’의 영화 음악 작곡)는 자선 콘서트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분의 시를 사랑합니다. 그 음악에 대해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한 곡을 작업했는데 … 이번 공연은 제게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자선 콘서트 ‘평화의 음악, 하나된 세상’이 공연되는 동안 6천여 관객과 오스카상 수상 작곡가들은 모두 칭하이 무상사의 시들을 편곡한 공연을 매우 좋아했다. ‘평화를 구하는 자’의 시적 아름다움이 일반 대중과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리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텔리상 수상으로 입증되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가 이토록 폭넓게 퍼져 모든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다는 건 실로 대단한 일이다.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프레드 칼린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찬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은 매우 독특한 인물과 매우 독특한 순간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그런 시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작품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가사가 되는데, 그건 그 시들이 진실된 체험을 가져다 주면서 또한 좀더 우주적이고 보다 확장된 인생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이 시들을 통해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셀린 디온(Celine Dion)이 녹음한 ‘연인을 보내주오(Send Me a Lover)’를 만든 저명한 작사·작곡가 조지 대처(George Thatcher)는 이렇게 평했다. “그 시어들, 흐르는 물처럼 서로 어울리는 시어들의 어울림, 심상들, 그 시들을 읽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죠.”

내면의 성전을 찾고자 갈망하는 우리는 모두 ‘평화를 구하는 자’이다. 우리가 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스승님의 자비로움이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처럼 소리 없이,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내면의 천국을 깨닫도록 우리 앞길을 비춰 주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별들은 길을 밝혀 주고
성인의 대자비를 일깨운다네.

스승님의 아름답고 진심 어린 시들은 구구절절 성인의 눈물처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절망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인류의 고귀한 목적을 상기시켜 준다. 



미국 소식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버지니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버지니아] 버지니아 센터는 매달 정기적인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방편법을 전수하고 다른 단체들과 더불어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지런히 스승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최근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 C.의 힐튼 마크 센터 호텔(Hilton Mark Center Hotel)에서 개최된 '2006년 전국 동물 권리 대회(Animal Rights 2006 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했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단체들이 참석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동물 권리 보호 운동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60여 단체에서 참가해 거의 100개에 달하는 부스를 설치했다.

동수들은 힐튼 마크 센터 호텔 플라자 볼룸의 전시장에 부스 하나를 예약할 수 있었다. 전시장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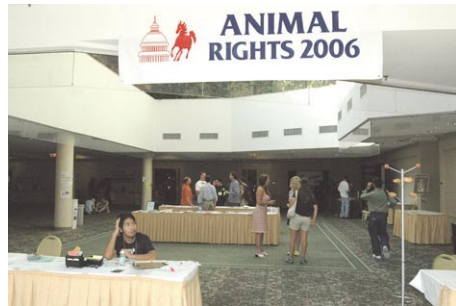
매달 열리는 비디오 강연회.

안적인 의식주 양식을 선보이는 채식주의자들로 가득했다. 우리 부스에선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테이프, 만세등, '대안적인 삶' 전단을 비치하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했다. 또 맛있는 채식 요리도 제공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 팀은 행사장에 남아 부스를 관리하며 전단을 배포했고, 다른 한 팀은 행사장 방문객에게 제공할 채식 음식을 밤낮으로 계속 준비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에 와서 요리법에 대해 물었다.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음식이동이 나는 바람에 사람을 보내 음식을 더 가져와야 했는데, 음식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음식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차례를 놓칠까 봐 길게 줄을 선 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많은 인파가 우리 부스로 몰렸다. 부스를 준비하던 첫 날, 한 사저는 빛으로 된 스승님의 화신이 나타나 대회장 전체를 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4일간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크게 각성된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다.



‘2006년 전국 동물 권리 대회’에서.

사람들과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동수들은 매우 기뻐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더 높아졌으며 이런 고상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 새 시대에는 동물 학대와 같은 일이 먼 과거 일이 될 것이다. 

신의 사랑으로 빛난 채식 축제

뉴욕 뉴스그룹 (원문 영어)



[뉴욕] 지구 구조대(EarthSave)는 채식을 주창하는 단체로서 설립자 존 로빈스(John Robbins)의 저서 『새로운 미국을 위한 음식(Diet for a New America, 한국 출판명: 육식이 지구를 망친다)』로 시작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 행진(Health March)’과 매년 개최되는 ‘건강 체험 축제(Taste of Health Festival)’와 같은 행사를 통해 이 조직은 인체와 지구에 이로운 음식, 즉 과일·채소·곡물·콩류를 위주로 한 채식으로 전환하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한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통해 보다 많은 뉴욕 시민들과 신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뉴욕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7일 지구 구조대가 뉴욕 시 링컨 센터(Lincoln Center)에서 개최한 제5회 ‘건강 체험 축제’에 참가했다. 행사에 초대된 모든 단체와 음식점들은 지구 구조대의 심사를 거쳐 행사에 100% 순수 채식 음식을 제공했다.



신의 축복으로, 우리 부스는 정문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배정되었다. 스승님의 1995년 세계 천의 패션쇼의 시발점이었던 뉴욕 주립극장(New York State Theater)이 마주 보이는 곳이었다. 행사장 양쪽 입구에 세워



진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요리책 『무상 주방(Supreme Kitchen)』을 비롯한 다른 출판물과 그림들을 부스에 전시하는 동안 주방 팀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다. 맛있게 만들어진 채식 요리에 이끌린 많은 손님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왔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채식 요리법과 우리 채식 식당의 위치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스프링롤, 과일 샐러드 같은 간단한 채식 조리 방법도 현장에서 시연해 보였다. 요리 시연은 대단히 인기가 좋아서 많은 참관객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랫동안 서서 구경했으며 채식의 장점에 대해 묻곤 했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 물품을 구매했고, 채식 요리가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을 불러 맛을 보게 했다. 한 손님은 동수들이 채식 요리 시범을 보일 때 엄청난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방문객이 우리 부스로 돌아와 친구 생일 파티에서 같이 나눠 먹을 '채식 오리 요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음식이 이미 다 떨어진 뒤라서 우리는 그녀에게 재료 구입처와 요리법을 알려 주었다.



이 밖에 동수들은 행사 기간 내내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과 주변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어떤 이들은 전단을 받자마자 발길을 멈추고 채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우리와 상의했다. 우리 동수들은 채식·사랑·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고귀한 일에 동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과 충만한 은총을 느꼈다. 🌸



대한민국 소식

영혼과 육신을 위한 음식의 첫 발견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3년(2006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스승님의 예술 작품 특별전이 열렸다. 이 전시회가 열린 장소는 서면 중

심지에 위치한 영광서점으로, 부산에선 매우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7월 15일 오후에는 2시간에 걸친 채식 세미나와 함께 채식 요리 시식회가 열렸다.


영광서점은 아담한 화랑과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강연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관대한 서점 지배인 부인 덕분에 가능했으며 그녀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줬다.



일주일간의 전시회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그림을 보기 위해 방문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행사 기간에 계속 방영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사람들은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강연이 끝난 뒤에는 관음법문에 관해 문의하기도 했다. 강연을 끝까지 지켜본 한 스님은 자주 체험하는 내면의 소리에 대해 늘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 스님은 입문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의 메뉴를 모두 채식으로 바꿨다. 스님의 급식소는 130여 명의 노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들과 같이 온 한 부부는 스승님의 강연에 깊이 매료되어 곧바로 채식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들은 비디오 두 편을 끝까지 관람했으며, 이처럼 소중한 행사를 열어 준 동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입문을 신청할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채식 세미나의 시식회로 행사는 절정을 이루었다.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가 특별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조만간 센터를 방문해 입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경 시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




[경북] 6월 11일, 경상북도 문경 시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채식 음식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에 동수들은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 아침부터 문경새재공원 입구에서 무료 시식회가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채식 고기’를 맛있게 먹었으며, ‘대안적인 삶’ 메시지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강연회는 문경 시민 문화센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예약한 장소는 원래 60석밖에 안 되는 작은 홀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문화센터에서 장소를 더 넓은 홀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이 놀

라운 안배에 감사드렸다. 나중에 보니 130여 명이나 강연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문경시가 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다.

강연회가 끝난 뒤 모든 손님들은 특별 채식 뷔페에 초대되었다. 예기치 못한 사랑의 초대에 감동한 사람들은 만찬을 즐기며 채식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포모사 소식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여름 캠프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관음 가족 여름 캠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린 동수들의 소망을 들어 주기 위해 장화 센터는 황금시대 3년(2006년) 7월 말경,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주제로 한 여름 캠프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채식을 소개하기로 했다. 연극, 음악 공연, 무용, 놀이 등의 프로그램은 재미있고도 교육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토 창작 시간과 채식 간식 만들기 시간도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모두 즐겁고도 알찬 시간을 보냈다.



점토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7월 28일 금요일 밤, 기쁨에 찬 약 4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동수들이 2박 3일의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캠프장에 도착했다. 이 지역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7월 29일 토요일 이른 아침, 어린이 동수들은 마을 주민들이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모두 다 함께 채식 피자 만들기, 비즈 공예, 젤리 양초 만들기 등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이곳에 사는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 재능 있는 어린 동수들이 반주를 곁한 독창, 악기 연주, 무용, 연극 등의 공연도 선보였다. 어린 동수들의 뛰어난 공연에 매료된 관중들이 큰 박수로 화답했으며 훈훈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슈수이 향의 향장과 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향장은 캠프를 개최하고 채식을 홍보해 준 동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행사에 참가한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오후에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물놀이를 마친 후 저녁에는 이날 행사의 최고봉이었던, 동수들의 '빛과 소리 파티'가 열렸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어린 동수들은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발표하고 일상

생활과 수행에서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었다. 또한 스승님과 부모님, 동수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도 나타냈다. 어린 동수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꾸밈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자리했던 다른 동수들은 무척 즐거워하며 흐뭇해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마지막 날에 있었다. 일요일 아침, 지역 주민들이 다시 모이자 수제 쿠키 만들기 와 점토 모형 만들기 시간이 제각기 진행되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강사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레 점토를 반죽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귀여운 동물 모양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작품이 완성되자 지도 강사는 아이들이 동물 사랑과 자비로운 채식에 관한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인쇄된 장식물을 자기 작품에 붙이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점토 창작품은 순식간에 채식을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로 탈바꿈했다! 다음 순서로는 모든 참가자들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하고 팀원 간의 우애와 협동심을 다지는, 신나는 장애물 경기가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 단체와 막역한 사이인 슈수이 중학교 세동민 교장이 장애물 경기에서 우승한 아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치사를 했다. 세 교장은 치사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우리 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아이들의 활기차고 뛰어난 공연을 칭찬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채식 이

념과 자선 활동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우리는 참가한 모든 손님들에게 풍성한 채식 식사를 대접했다. 세 교장은 맛있는 채식 요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아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



슈수이 중학교 세동민 교장이 상을 수여하고 여름 캠프 폐막 연설을 하다.



채식 이념을 홍보하는 점토 창작물.

지구와 더불어 건강하게 살자

자연 휴양림에서 보낸 하루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에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인류인 우리는 우리 몸의 세 부분, 즉 육체·마음·영혼을 완전히 꽃피워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완전하게 계발된 인간이 될 수 없으며, 결코 행복하거나 평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8월 7일, 타이베이 센터는 어린 동수들이 대자연 속에서 이완하고 심신과 영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타이베이 근교 산사에 있는 자연 휴양림을 다녀오는 특별 여행을 계획했다. 여름 방학 중에 진행된 이번 당일 여행의 주제는 ‘지구,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건강하게 살자’였다. 이날 도회지에서 자란 어린 사형사자들은 학업에서 벗어나 천연 자원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명상도 하고 한가로이 산림 속을 거닐며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는 하루가 되었다.

행사 당일, 5세부터 6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일행 37명은 3명의 자원봉사 부모 동수들의 인솔을 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만월 공원에 도착했다. 박식하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자원 봉사 가이드는 우리가 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식견이 높고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우리를 자연의 세계로 안내했다.

모두들 느긋하게 거닐면서 산림과 식물, 생명체 안에 있는 창조의 신비를 탐구해 나갔다. 우리는 산과 강이 초목과 동물의 삶을 보호하고 생태계와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깨달았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숲의 고상한 손님이 되어 자연을 존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무궁무진한 녹색 자원과 자연 생태학에 관한 끝없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를테면 산의 양치류는 왜 나무에서 자라는지, 왜 포모사에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삼나무 숲이 많은지, 식용 야생 토란과 독이 있는 토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웠다.



샘에서 솟아 나온 시원한 물줄기에 모두들 나이를 잊고 양말과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어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물장난을 치며 놀았다. 점심때가 되어 우리는 개울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오후에는 아름다운 처녀 폭포와 만월 폭포를 찾아갔다. 절벽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줄기가 계곡에 뿌연 물안개를 자아냈다. 아낌없이 뿌려대는 물보라가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다. 태풍 칠이었지만 이날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다. 만월公園으로 떠난 여행은 우리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신의 놀라운 선물이었다! 🌸

🌿 🌿 행사 메모 🌿 🌿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책 기증 활동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인터뷰 · 보도 (원문 중국어)

청잉슈오 사저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득 품고 있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언제 이 지루하고 따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독교인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 활동에 나가기 시작했고 종종 신께 기도도 드렸지만, 자기 기도나 요구를 신께서 제대로 듣고는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에 타이베이 센터에서 그녀가 재직하고 있는 신장 초등학교 도서관에 스승님의 책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책을 읽고 난 후 청 사저는 채식하기 시작하고 지역 센터에 연락해 지난해 5월 방편법도 전수받았다.

방편법 수행은 청 사저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신이 자신의 모든 진실한 소망을 듣고 계심을 느꼈다. 예를 들어 신께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돌아왔다! 또한 채식을 시작한 후로 바깥에 나가 식당을 찾을 때면 낯설고 외진 곳에서도 신은 항상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었다. 신은 한 번도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고 청 사저는 감탄했다. 그녀는 스승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로 신이 진실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체험했다.

채식과 수행을 시작한 후 그녀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두 마리 토끼도 영향을 받았다. 예전에는 경계심이 많아서 먹이로 유인해야만 다가왔던 토끼들이 이제는 제 발로 다가와 그녀의 발 근처에 엎드린다. 또 그녀가 센터에서 가져온 가피물을 보면 바로 물고 와서 어서 뜯어 달라고 채근하곤 한다. 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청 사저는 올해 7월에 관음법문 입문을 신청하고 지금 입문을 기다리고 있다.

스승님의 절묘한 안내 덕분에, 책 기증 활동이 길 잃은 양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 우리는 머지않아 청 사저처럼 인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신과 연결되는 길을 되찾고 천국으로 가는 고향행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해외의 불우한 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포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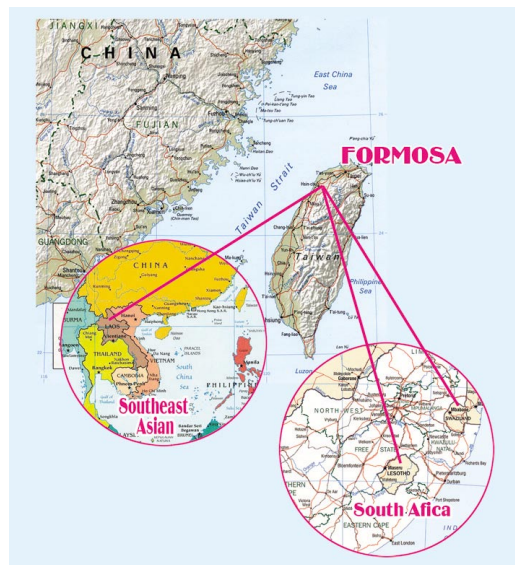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중화민국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2002년 해외에 식량 공급 형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정책 지침을 제정했다. 국경과 외교 관계를 초월해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자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한 이 정책은 심각한 재해를 입거나 기근을 겪는 이들에게 매년 10만 톤의 쌀을 제공한다.

올해 농업위원회와 월드 비전(World Vision)은 쌀 1만 7천 5백 톤을 스와질란드(Swaziland)·레소토(Lesotho)·라오스(Laos)의 빈곤 가정과 AIDS 환자 가족들, 불우한 고아, 여성, 노인들에게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번 식량 원조는 기본 식량을 공급해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5월과 6월 사이에 쌀 5천 톤을 실은 첫 번째 배가 스와질란드에 도착했는데, 이 정도의 식량이면 약 10만 명이 4개월 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8월에는 쌀 2천 5백 톤을 실은 배가 레소토에 도착해 대략 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라오스는 심각한 기후 변화와 관개 시설 및 현대 장비의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곤 가정은 식량 부족과 함께 어린이들이 대부분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드 비전은 작년에 농업위원회와 협력해 1천 5백 톤의 쌀을 라오스에 제공했다. 올해에도 1만 톤의 쌀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라오스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보조 기구 설립을 도울 것이다. 1만 톤의 쌀은 9월에 라오스로 수송된다.

식량 원조를 통해 포모사인들은 자신들의 자비롭고 사랑에 찬 마음을 다시 한번 전세계 각지에 전해 가난한 가정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냈다. 🍵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2호차’ 소방관들
-작은 선행에서 위대한 비전으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되었다. 이어서 소방관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각자 어떻게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채식이 육체와 정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짚막하게 발표했다. 립 이설 스타인은 말머리에 '사랑의 길을 걷다'에 관해 언급하면서 세상에 대한 스승님의 아름다운 꿈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또한 동료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고쳐 주려고 시작한 작은 호의와 바람이 이제 더 크게 자라나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알리는 사명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2호차 소방관들은

현재 자신들의 채식 생활과 그간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다. 또 다른 소방관은 자신이 다른 소방서에 배치될 때면 그곳 소방관들에게도 건강한 채식을 소개한다고 얘기했다.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시상식이 끝난 후 동수들이 준비한 점심을 먹으면 서 우리는 립 이설스타인, 데릭 즈위니먼, 맷 무어, 스티브 마르티네즈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들은 채식을 한 뒤로 화재 진압 작업을 할 때 좀더 오래 버티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립이 말했다. “눈앞에 닥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결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죠. ... 불은 가차없고 정말이지 불길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임기 응변으로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길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폭력 사건과 긴급 사태, 자동차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의 90%가 의료 사고이다.

소방관들은 순식간에 자신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언제든 또 다른 사고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맷 무어는 채식을 하니 일을 하면서 잠을 덜 자도

괜찮고, 특히 야간 출동으로 한두 차례 이상 나갈 때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부 만일 자신들이 건강에 이로운 채식을 하지 않았다면 기분이 엉망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릭은 자신이 채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을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채식을 통해 서로가 하나되고 조직력이 더 강해졌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불장난이 위험하다고 가르치듯이 사람들에게 육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했다.

립은 자신들의 현재 소망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채식의 이로움을 일깨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멋진 경험이었다며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칭하이 스승님에게서 상을 받아 무척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후대를 이롭게 하는 나눔의 정신

산민 사형/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영어)

포모사의 부호 왕용칭(王永慶) 선생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중국 본토의 농촌 지역에 만 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왕 선생은 미국상으로 시작하여 많은 기업의 창시자가 되었고, 지금은 중국 10대 부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업적에는 포모사의 산업화뿐 아니라 포모사 의료 체계의 성공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왕 선생이 세운 현대식 병원의 탁월한 모범에 의해 매우 독재적이었던 기존 병원의 체계가 서비스 지향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업 능력과 관리 경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설립한 모든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해 90세인 왕 선생은 아직까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수년 동안 중국과 포모사가 평화 협정 체결을 맺도록 중재한 주요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헤즈볼라 게릴라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돌이켜보며

루비 사저/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원문 영어)

최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소년원의 원생들에게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를 보여 주었다. 이 영화는 한 남자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나치의 광기 어린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이 무렵 방송 매체는 중동 전쟁과 다른 나라의 분쟁 소식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학생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반대로, “장담하건대, 세상은 좀더 사랑이 많아지고 평화로워질 거예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내가 꿈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난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세상의 의식이 이미 고양되어 지구가 머지않아 천국이 되리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생각을 확실히 뒷받침해 줄 증거가 부족했다.

얼마 후, UN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Hezbollah) 게릴라군 사이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만장일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치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면 레바논 남부의 평화 정착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대략 1만 5천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지 3일 후에 레바논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총과 포탄의 굉음은 사라지고 대신 폭죽 소리가 거리를 울렸다. 원래 레바논 남부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기쁨 반 슬픔 반의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5주에 달하는 전쟁으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레바논인과 이스라엘인

모두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전쟁이 끝나는 기쁨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레바논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격스러워했다. 학생들은 전쟁의 먹구름이 마침내 사라지고 평화의 천사들이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나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더욱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좀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각성되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강해져서 해묵은 증오와 폭력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무력이 아닌 외교 협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보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어 제2차 세계 대전의 대학살과 같은 일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당시 대부분의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납치 사건에 맞서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파생되는 죽음과 파괴가 전세계를 일깨웠다.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건 야만적인 행동

에 불과했다. 레바논 사람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목도한 후 전세계 사람들은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긴 이스라엘과 지원 세력들은 결국 평화 결의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전세계 의식이 계속 고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면 전쟁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참고:

<http://www.msnbc.msn.com/id/14258758/>

<http://www.cnn.com/2006/WORLD/meast/08/11/mideast.main/index.html>

http://en.wikipedia.org/wiki/2006_Israel-Lebanon_conflict



매체 보도

출처:

BBC 뉴스

로이터통신 기사

신의 축복이 영국의 태도를 바꿔 놓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국 정부의 과학 정책을 감독하고 약물을 분류하는 영국 과학 상임위원회(UK Science Select Committee)는 최근 술과 담배를 비롯한 현행 약물 분류가 철저한 과학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가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약물이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 중독 정도, 사회적 영향 및 사회에 초래하는 손상 비용에 의거해 각종 약물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다. 헤로인과 코카인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명적 약물 목록에서 술이 5위를 차지한 것이다! 현재 술과 담배 모두 이미 금지된 기존의 많은 약물보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결과로 한 의회 의원 모임은 현행 약물 분류 체계를 건강 및 사회적 위험에 기초한 것으로 대체하고 그 순위에 술과 담배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스승님께서 올해(2006년) 2월 영국에서 술의 악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스승님의 메시지는 정말 유럽과 영국 정부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한 사막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처음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염분이 많은 사막 중 하나를 옥토로 바꾸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퍼머컬처(Permaculture: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고문인 호주의 조프 로턴(Geoff Lawton)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해수면보다 약 400m(1,300피트) 낮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짠 호수인 ‘사해’로부터 고작 2km(1.25마일) 떨어진 먼지폭풍 지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 이 땅은 여름 기온이 50도(화씨 122도)가 넘고 담수도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적당하지 않은 곳 중 하나이다. 기존 농업 방식은 땅에 비닐을 씌우고 농작물을 심어 재배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

는 것이었다. 로턴은 2000년 8월 요르단 원조 기구와 공동 협력하고 있던 일본 원조 기구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의뢰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증하는 것이다. 로턴과 그의 파트너 신두(Sindhu)는 먼저 프로젝트를 설계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퍼머컬처 경작법을 가르쳤다. 이 지역의 이슬람 위주의 문화를 존중해 신두가 여자들을 가르치고 조프는 남자들을 가르쳤다.


먼저, 그들은 기존의 토질 구조를 이용하여 단단한 지하 암반 외곽을 따라 1.5km(0.93마일) 길이의 도랑을 팠다. 이 도랑은 지표수를 보전하고 지표수가 땅속 깊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도랑의 가장자리에 뿌리 덮개와 쓰다 남은 식물

재료로 둔덕을 쌓았다. 이 재료들은 이전까지 요르단 농부들에겐 쓰레기로 여겨져 태워졌던 것이다. 둔덕의 위쪽에는 특수한 질소 고정 사막 식물들을 심었고, 그 아래쪽에는 대추야자·무화과나무·석류나무 등과 같은 과실수를 심었다. 또한 도랑 자체를 뿌리 덮개와 많은 식물성 비료로 채우고 그 뿌리 덮개 아래에 적수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의 증발을 최소화했다.

지역 주민들과 다른 농업 관계자들이 놀랄 정도로 단계적인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년도 안 돼서 무화과나무들이 1미터(3피트)로 자랐고 열매까지 맺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했다. 다른 과실수들도 아주 잘 자라났다. 도랑의 바닥은 습기로 인해 버섯이 싹을 틔웠고 토양 자체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또 다른 기적은 토양의 염분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염분이 섞인 물을 관개 용수로 쓴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토양을 검사하자 퇴비에 풍부히 자라고 있는 미생물들이 밀랍 성분을 만들어, 염분을 불활성 물질로 변환시켜 식물이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지구 최악의 불모지 중 한 곳을 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우리가 주변 생물과 함께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으며 누구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일 마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천국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내딛

으면 천국은 우리를 향해 100걸음 다가올 것이다.

이 지상에 발을 디딘 모든 인류와 다음 세대를 위한 황금시대와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참고:

<http://207.21.197.146/per/permaculture.swf>

<http://www.permaculture.org.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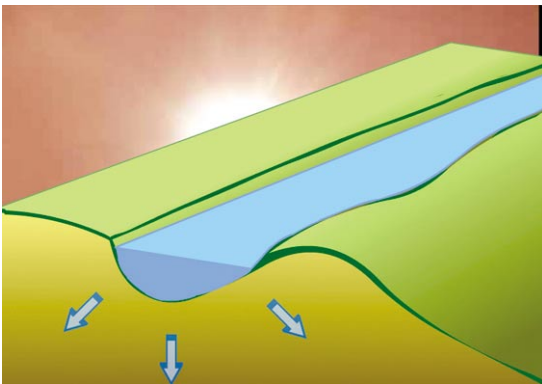
http://permaculture.org.au/?page_id=12



원래 불모지로 여겨졌던 이전의 사막 전경.



일년 후 놀랄 만치 성장한 과실수.



'영속 농업' 프로젝트의 핵심인 물을 보존하는 도랑.



도랑에 자라난 버섯과 땅에 유익한 미생물.



뿌리 덮개로 채워진 도랑을 따라 심어진 과실수와 질소 고정 사막 식물.



뿌리 덮개가 충분히 덮어진 '퍼머컬처' 텃밭.




전도 유망한 녹색 연료 자원

달린 램 사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스페인의 한 회사가 태양 에너지와 광합성 작용 및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석유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화석 원유에 맞먹는 바이오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시스템(Bio Fuel Systems)사의 말이다.

땅에서 생산된 원유, 화석 연료는 수백만 년 전 바다에서 살았던 식물과 동물이 부패된 물질에서 형성되며 다른 천연 자원과 마찬가지로 연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비재생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식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연료는 지속적이고, 재생 가능한 청정 연료 자원을 제공한다.

화석 연료는 자동차 운행을 위해 연소되거나 가정과 발전소에 열을 공급할 때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주요 온실 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CO_2)를 배출한다. 한편 식물은 생장할 때 CO_2 를 흡수하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는 화석 연료보다 적은 CO_2 를 배출한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전반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황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서 산성 비의 주요 전구체인 이산화황(SO_2)과 같은 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

미국은 바이오 디젤을 바이오 연료로 채택했고 현재 전국에 65개의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 대체 연료는 미국 50개 주의 대중 주유소와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할 수 있다. 

참고:

<http://www.ipsnews.net/news.asp?idnews=34239>


http://www.biodiesel.org/resources/biodiesel_basics/default.shtm

모두 수행하고 성인이 되는 시대

소리 없는 바람 (원문 중국어)

최근 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관음 가족 신세대들과 함께 일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다. 요즘 포모사 사회에선 어릴 때부터 응석받이로 자라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쉽게 좌절하고 외모와 물질적인 안락함, 감각적인 쾌락에만 정신을 쏟는 신세대를 가리켜 ‘딸기족’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우리 신세대들은 그와 달랐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들은 부지런하고 주의 깊고 즐겁게 일했다. 또한 우리가 그들 나이였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일을 배웠으며 자장 또한 좋았다. 흔히 총명한 사람들은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관음 가족 청년들은 영리하고도 순수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무척 즐거웠다. 나중에 나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채식하고 명상을 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스승님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순수한 규범과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 훈련시킨다면,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매우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100% 좋게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100명 중 50명만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겁니다! 아니면 그 중 60, 70%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30%가 나쁠 수 있지만 그들도 완전히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 30%의 아이들은 나머지 60, 70%의 아이들만큼 좋진 않아도 그들의 폭력적인 성질은 최소화되고 사회에서 나쁜 일을 저지를 내적인 충동도 최소화됩니다. 그들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여러 센터의 우리 자녀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수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머무르셨던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 나는 항상 야단만 맞았다. 그것이 스승님의 사랑 어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난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곤 했다. 지금까지도 난 일을 잘 못해서 스승님께서 애쓰시며 힘겹게 가르치셨던 수준에 못 미친다. 다행히도, 스승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상에는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가득 찬 신세대들이 많아졌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집집마다 수행하고 사람마다 성인이 되는 것, 여러분 모두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뉴스잡지 126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에서 발췌.



영적인 성공을 성취할 소중한 기회를 귀하게 여기라

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주와 이 행성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지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안락함과 부유함, 많은 세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반면 추상적이고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지구라는 커다란 집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성공합니다. 또 모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행히도 양쪽 모두에서 실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성공하는 이들은 엄청난 물질적 안락을 누리지만, 때로 신이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만 성공한 이들은 물질적인 이득에 대해 신경쓰지 않기도 하는데, 이 또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신을 따르고 수행을 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견해를 심어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한 이들에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



겠지요. “신을 따른다는 사람이 뭐 저래? 너무 사치스럽잖아. 도대체가 출가자처럼 보이지 않는걸!”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셈인데, 그건 우리 마음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균형을 잡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니깐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성공을 하겠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보다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절한 기회와 장소, 적절한 사람들과의 인맥, 그리고 적절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신을 깨닫는 영적인 면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적절한 기회를 찾아야 하고, 신에게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길을 기억하게 도와줄 적절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수행에서 성공하면 대개 물질적인 성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마태복음 6:33).”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세속의 온갖 물질적인 이득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성공해서 그 이익으로 자신과 불우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했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덧없고 파괴되기 쉬운 것들을 위해 우리는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며 아내와 아이들, 친구들마저 잊어버리고,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나고 빨리 늙는 등 온갖 불편을 감수합니다. 오직 물질적으로 성

공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신도 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쁠 때는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니까요.

이제 영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우리가 신을 깨닫고 전체 우주 왕국을 되찾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조건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구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으며 오직 얻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데 왜 돈을 내야 합니까?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아름다운 미소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서 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과 하나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지고의 존재, 전능한 존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 모든 힘을 가진 자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인식하려면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사업하는 법을 알아야 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영적인 힘의 근원과 연결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 비참한 삶, 불행한 삶, 또는 절망적이고 무력하게 살면서 사사건건 구걸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합니다. “너희는 신의 자녀이다(요한 복음 3:1-10).”라고 했으므로 신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마태복음 7:6-8).”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를 입증하고 싶어합니다.



신을 영광되게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이 신을 영광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하루에 백 번씩 신에게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큰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 모두에서 성공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우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별로 노력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싶을 때 그냥 반지를 빼서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신을 아는 것도 것처럼 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거나 여러분의 선생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신이 진실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며 하느님 아버지는 진실로 전능하시며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일깨워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상 가운데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 일 없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을 집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을 어렴풋이 보다가 매일 신과 소통할수록 점점 더 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총명해지며, 점점 더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진실로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때는 주 예수가 그랬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요한 복음 10:30).” 라고 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다시금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나로선 영광스런 일이지요.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신의 자녀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9. 6. 9. 영국 런던 (원문 영어) (DVD No. 662)

신이 내게 계시하길,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의 자녀이니깐요. 어떤 상황이든 일어나야 하니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좀더 사랑이 많고 이해심 있고 지각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를 혼자서 해낼 수 없다




면 신에게 의지하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찾아내 신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신이 우리의 기대에 따라 우리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보다 신의 자녀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의 자녀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생각이 됩니까? 단지 표면적인 단어가 아닌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신은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고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신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어디에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이고, 너희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너희 내면에 불성이 있다.” 기독교에선 이렇게 말하지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필품조차 부족한 삶을 살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화를 내고 아무 이유 없이 초조해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잠재의식이 아주 오래 전 천국에서의 생활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질 수 있었고, 생각하는 대로 뭐든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해야 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아주 피곤하고 몸이 아플 때도 단지 이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육신을 두고 떠나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줌과 별레가 먹는 지상에 두지 말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천국에 두어라.”

우리가 천국에 갈 기회가 있어 올라간다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돌아와서도 계속 일하러 가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지만, 더 이상 노예와 같은 삶이 이유도 모른 채 우리를 짓누른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왜 이리 고되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압니다. 인생이 왜 이런지 알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러면 세속적인 문제, 불안과 걱정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알던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고향을 알면 이곳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닌 천국의 본질과 우주에서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진아를 알게 된다면, 그 즉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살려 달라고 애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치고 싶어하지도 않았습시다. 예수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도망쳐서 숨을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 개의치 않았으니깐요. 그는 때가 되었음을 알았고, 신의 뜻에 복종했습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이렇게 영광되게 하시는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거나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시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신과 하나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깐요. 육체는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의 영혼은 언제나 신과 함께 있었습시다. 

채식주의를 통해

자비로운 신의 길을 따르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우리는 신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고통과 죽음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려 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동물을 보면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는 신이 그들에게 살고자 하는 본능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끼여들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건 신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대해 주길 바라는 방식으로 다른 모든 존재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은총을 받을 것이고 오래 살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1. 29. 파나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6



영화배우 파멜라 앤더슨(오른쪽에서 두 번째).



채식주의자 영화배우이자 제작자 브래드 피트.



영화배우 알리시아 실버스톤.

세계 의식을 성인의 수준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신 스승님의 자비와 개인적 희생으로, 채식주의는 지난 20년 새 꾸준히 성장해 이제는 하나의 대중적인 흐름이 되었다. 채식주의를 장려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협회의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 또한 ‘보다 고귀하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영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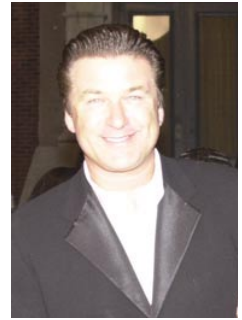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있는 많은 인도주의 단체와 동물 복지 단체들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채식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우리 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하나의 세상 채식 식당’(One World Vegetarian Cuisine Restaurant)과 함께 이런 행사에 초대를 받고 참가해 채식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행사를 후원해 왔다. 참석자들 가운데 알리시아 실버스톤(Alicia Silverstone), 대릴 한나(Daryl Hannah), 알렉 볼드윈(Alec Baldwin),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 핑크(Pink), 모비(Moby), 페르시아 화이트(Persia White), 조안 반 아



미셸 스피어스(Michelle Spears)(맨 왼쪽)-영화 '개의 해' 소품 담당.('The Drive', 'Sons Of Thunder', 'Never Rob a Band with Someone You Love' 제작).



유명밴드 노다웃의 베이스 기타리스트
닐 카날(오른쪽).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

르크(Joan van Ark), 린다 블레어(Linda Blair), 조아퀸 피닉스(Joaquin Phoenix), 트레이시 빙햄(Traci Bingham) 같은 인기 영화배우들과 유명인사들이 우리 전시장을 방문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맛보았다.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스승님과 채식을 통해 비폭력의 실천을 강조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스승님이 전세계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시고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채식 홍보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스승님과 모든 존재를 향한 그 크나큰 자비심에 존경을 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려고 채식주의에 관한 스승님의 강연 DVD '진정한 영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갔다.

할리우드에는 자비심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동물 애호가가 되면서부터이기도 하지만 채식이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이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명밴드인 노 다웃(No Doubt)의 베이스 기타리스트이자 매니저인 닐 카날(Neil Kanal)과 배우 케빈 닐론(Kevin Nealon)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채식 추수감사절을 경축하기 위해 '하나의 세상' 채식 식당에서 만든 채식 칠면조를 구입하기까지 했다. 이들 자비로운 스타들은 스승님이 2001년 6월 5일 플로리다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깊은 동감을 표한다. "동물들은 살아 있는 창조물이고 살아 있는 존재로서 우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단지 우리보다 약간 더 많은 직관과 예리한 신체 능력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동물에게도 지성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복잡한 컴퓨터(두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DVD No. 712 '동물의 신성한 지성'에서)

그러므로 파라마운트 영화사(Paramount Pictures)가 영화 '개의 해(Year of the Dog)'의 촬영을 위해 '하나의 세상' 채식 식당에 협조를 구한 건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 전설적인 영화 제작사는 영화에 우리 식당을 넣고 싶다고 말했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마이크 화이트(Mike White)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동물의 권리와 채식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이다.

그들은 식당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에, 감독과 제작진 그리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채식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작자 중 한 사람도 이를 통해 '하나



수상 음악인 핑크.



영화배우
페르시아 화이트.



영화배우이자 모델인
트레이시 빙햄.



마이크 화이트(맨 왼쪽)-영화 '개의 해' 감독, 완전 채식주의. ('Them', '나초 리브레Nacho Libre',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Dawson's Creek' 감독).



영화 '개의 해'를 촬영하는 배우들과 제작진.

의 세상'의 채식 음식을 맛볼 기회를 가졌는데, 그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브래드 피트(Brad Pitt)였다. 그 또한 채식주의자이다. 전세계 수백만 명이 볼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해서 자비의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영적 각성의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존재를 인도주의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가 이와 같은 행사에 꾸준히 참가해 온 결과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하나의 세상' 채식 식당의 많은 특선 요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는 신의 고귀한 생활 방식, 즉 채식주의를 하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식당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축복이었다고 느낀다.

스승님은 1993년 5월 22일 도쿄 강연에서 비폭력과 채식주의에 관해 통찰력 있는 견해를 나누셨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움직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살을 먹으면 잠재의식 속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질병과 온갖 불편한 마음, 불행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 진실로 자유롭고 근심 없는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살아 있는 중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양시켜 모든 존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




채식 미인이 한층 심오한 가치관을 일깨우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에 들어선 지금, 녹색 생활 방식을 알리는 데 힘을 기울이는 자비로운 영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2005년 미스 영국인 브룩 존스톤(Brooke Johnston)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사람들에게 육식 습관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인지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브룩은 12년째 채식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이자 동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운동가이다. 최근 그녀는 초대를 받아 '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PETA)'의 최신 광고 캠페인을 위해 발언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자, 채식을 하자'라고 명명된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동물의 권리와 채식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브룩 존스톤은 15살 때 공장식 축산 농장의 동물들이 잔인하게 다뤄지고 도살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PETA 캠페인 동안 브룩은 채식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주말 한 번만이라도 채식을 해 보면 자신의 건강과 활력, 기분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뉴스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나오면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평생 우리에게 갇힌 채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에게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 동물들에게 그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일에 자신이 과연 계속 일조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채식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습니다. 채식을 하면 자신과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대해 정말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브룩은 말한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완전 채식 요법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과학자들과 연구가들이 엄밀한 연구를 거친 끝에 저지방 채식 식단이 의사들이 권하는 당뇨병




식단보다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놀라운 것은, 저지방 채식 식단이 당뇨병 약만 복용하는 단일 요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결과였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당뇨병 작용 연구 교육 재단(Diabetes Action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의 재정 지원을 받아 ‘책임 있는 의약을 위한 의사 협회(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 PCRM)’와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9명이 22주간 참가해 참가자의 반은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제안하는 당뇨병환자를 위한 표준 식단을 따랐고 나머지 반은 저지방 채식 식단을 따랐다. 양쪽 다 당뇨병의 모든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채식 식단 참가자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채식 식단에 대해 PCRM 회장인 버나드 박사(Dr. Barnard)는 “모든 ‘부작용’ 조차 환자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호전 등이 그런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 중 85-90%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당뇨병 유형이다. 이 병은 흔히 노인층에 발병되기 쉬운데, 오늘날에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적게 하는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어린이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질환으로서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허반신 비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들과는 달리 제2형 환자들의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생성한다. 그러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췌장이 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혈당의 균형을 유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때 의사들은 대개 복용약과 함께 혹은 따로 인슐린을 처방한다.

이 연구에 참가했던 36세의 전직 워싱턴 D. C. 경찰관 반스 워렌(Vance Warren)은 이 식단으로 삶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체중이 74파운드나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221에서 148로 떨어졌으며 9%도 넘었던 혈당 수치도 5.3%로 떨어졌다(정상 수치는 6.0% 미만). 다른 참가자들도 이와 비슷한 획기적인 변화들을 경험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들의 건강이 대폭 개선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채식을 했더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볼 때 고기, 지방, 가공 곡물 위주의 서양 식단이 사실상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사람들이 이 같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교육시키고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의사들은 흔히 심장병 발작을 하고 나서야 환자들에게 식단을 바꾸고 고기와 포화 지방의 섭취를 크게 줄이라고 권한다. 그런데 발병 후 이런 처방을 내리는 대신 병이 나기 전에 권해서 사람들이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줄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채식이 인간의 몸에 가장 적합한 식생활이고 채식을 하면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다며 모든 이들에게 채식을 권한다. 

참고:

<http://www.pcrm.org/newsletter/aug06/diabetes.html>

http://www.diabetesaustralia.com.au/fact_sheets/type02.html

<http://al.godsdirectcontact.org/>

채식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은퇴식

차오차오 사저/ 포모사 타이중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2년(2005년) 5월, 나는 내가 제출한 퇴직 신청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고 뿔 듯이 기뻐다. 드디어 학기 말을 끝으로 30년간의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관례대로 학교측에서는 6월 말에 송별회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전교에서 유일한 채식주의자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년처럼 고기 먹고 술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인사주임에게 그런 우려를 표하며 이번에는 송별회를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며칠 뒤 인사주임은 송별회는 학교의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이 일에 대해 교장과 상의한 끝에 나의 소망대로 채식 송별식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채식 식당 몇 곳의 주소만 알려주면 그들이 나머지 일들을 처리할 테니 내게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교직원 회의에서 인사주임이 발표했다. “이번 은퇴식은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채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색다른 요리를 즐길 수 있을 테니 모든 교직원들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행사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의 재치와 융통성에 매우 감탄했다.

그동안의 동료들의 보살핌과 정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전에 써 두었던 시에다 인사말을 담은 카드를 ‘영적 선물’로 디자인해 달라고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여섯 번 접히는 카드가 예쁘게 만들어졌고 보기에든 즐거웠다. 또 빵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한 인도네시아 학생의 부모에게 부탁해 맛있는 파인애플 케이크를 만들어 물질적 선물도 제공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송별회 당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눈을 감고 스승님께 그 행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신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공양했다. 모든 것이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분위기는 매우 따뜻하고 우호적이었으며, 서빙도 매우 훌륭했고, 음식도 정말 대단히 맛이 있었다. 학교를 지켜야 할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직원들이 참석해서 10개의 테이블을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채웠다. 오락 프로그램 동안 사회를 맡은 두 명의 선생님이 내가 쓴 시 일부를 공연 중간 중간에 끼워 넣어 낭송함으로써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플루트 반주에 맞춰 성가를 불러 주어 나는 크게 감동했다. 이날 정말 뜻 깊었던 일은 술 마시기 좋아한다는 동료 교사들이 나의 계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행사 동안 음주를 자제한 것이다.

그 완벽한 송별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그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글을 쓴다. 바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채식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고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십년 넘게 사람들의 오해를 견딘 끝에 나는 마침내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내가 걸은 이 길을 버티고 그런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완벽한 엄마, 칭하이 스승님 덕분이다! 🌸

넉넉하고 편안한 명상복

젊음·유행·기품·낭만·편안함

모든 것을 갖춘 천의

디자이너: 청하이 무상사

아름다운 천의를 입으면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과 항상 연결되고 내면의 자성의 빛이 높이 고양되며 신의 무한한 축복을 세상과 나누게 된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해피 도기 천의를 비롯해 최신 천의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cj.com>

스승님의 그림 '동굴'이 새겨져 영성의 빛을 발하는 스타일의 천의.

SM. 관음보 컬렉션-스승님은 우리가 내면의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면이나 울로 만든 관음보에 감로범어를 인쇄하거나 수놓는 것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 처음 선보일 디자인은 '모두에게 평화(Peace to All)'와 황금시대(Golden Age) 시리즈.



무상 예술

남녀 캐주얼



남녀 캐주얼



HAPPY YOGI





무상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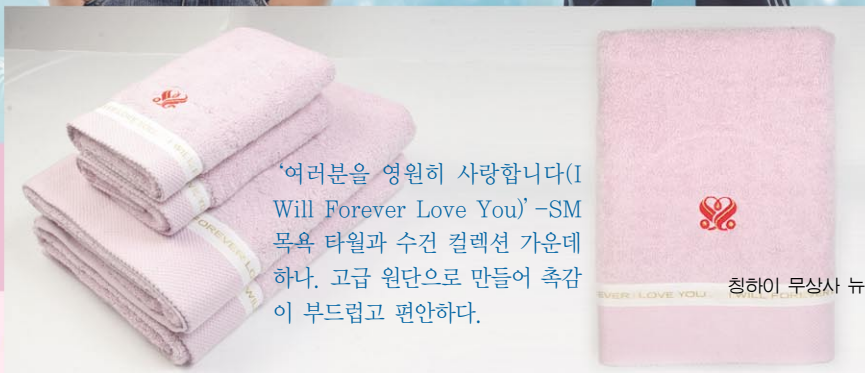


숙녀복





아 동 복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합니다(I Will Forever Love You)’ -SM
목욕 타월과 수건 컬렉션 가운데
하나.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 촉감
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교리에 교리를 틀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의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중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에콰도르

남미에서 보다 많은 축복을 나누다

에드가 나달 파레자 사형/ 페루 리마 (원문 스페인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멋진 임무를 수행한 후 우리는 페루로 돌아와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인 에콰도르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계속 배포해 나갔다.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7일, 우리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과야킬(Guayaquil) 시로 향했다. 34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간 우리 팀은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해 그날 하루 동안 수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기 대용으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삶’에 나온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그들은 채식의 중요성과 채식이 건강에 미치는 이로움을 이해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알려 주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여러 채식 식당을 방문해 손님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고 손님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식당 주인에게 전단을 남겼다.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한 식당에서는 10년째 채식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관음법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비디오 강연회가 있거나 에콰도르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다음날 한 에콰도르인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우리를 찾아왔다. 견본책자를 읽은 후 이튿날 바로 방편법을 배우러 다시 찾아온 그는 견본책자를 읽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에 마음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과야킬 시에서 전단 배포를 마친 후 우리들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 시로 이동해 그곳 주요 도로와 역사적인 중심지, 대학 등지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모두들 대단히 잘 받아들였고 고마워했다. 한 중년 신사는 전단을 받고 자신은 오랫동안 채식을 해 왔으며 책과 인터넷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줄 전단을 더 요청했다.

전단을 받아 본 한 여성은 전단에 적힌 식품마다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이 다니는 수녀원에 가져갈 전단을 요청했다. 키토 시의 많은 주민들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채식 음식과 고기 대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6월 17일, 우리는 에콰도르에서 활동을 마쳤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과 비할 데 없는 인도주의 정신을 대중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





미국 일리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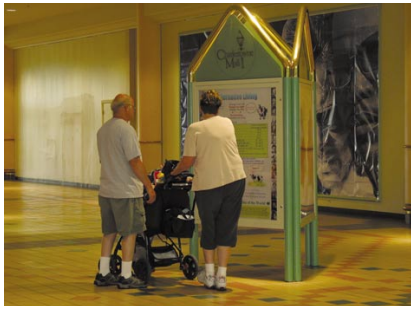
활발한 ‘대안적인 삶’ 여름 홍보 활동

일리노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시카고는 여름에 야외 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계속 홍보할 다양한 방법을 계획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매년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인 블루스 페스티벌(Blues Festival)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또 여름 내내 일요일 오후마다 시카고 시내에 있는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 같은 유명 관광명소에 가서 전단을 배포했고 6월에는 광고회사인 CBS 아웃도어스(CBS Outdoors)와 함께 일리노이에 있는 5개 쇼핑몰에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붙이는 3개월짜리 계약을 맺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8월 5일과 6일, 일리노이와 미주리 동수들은 시카고의 몇몇 동수들이 운영하는 채식 식당을 통해서 음식 판매상 자격으로 아름다운 미시간호 근처에서 열린 에번스턴 호숫가 예술 축제(Evanston Lakeshore Art Festival)에 참여했다. 많은 동수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전단 배포, 음식 준비, 채식 시식회 및 판매 등의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배포한 자료에는 ‘대안적인 삶’ 전단, 지역 채식 식당 목록과 채식 요리법, 스승님의 TV 프로그램 안내 엽서, 견본책자, DVD ‘진정한 영웅’이 포함돼 있었으며,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연회 안내 전단을 나눠 주었다.




‘대안적인 삶’ 포스터가 일리노이 시내 쇼핑몰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다.

축제 내내 우리 부스는 끊임없는 방문객들로 인해 온전 성시를 이뤘다. 채식을 시식해 본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 매우 맛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다. 한 소녀는 아버지를 우리 부스에 데리고 와서 “이 음식을 꼭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하고 음식을 권하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채식 정보를 알리는 우리의 멋진 활동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으며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채식 요리법과 ‘대안적인 삶’ 전단을 더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 옆 부스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한 여성은 자기 부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

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행사 주최자 중 한 사람이 우리 부스에 들러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부스는 두세 명이 운영하는 다른 부스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우리는 모두 행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복하게 함께 일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스승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타인에게 봉사하고 우리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이런 멋진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캐나다

승고한 생활 방식을 나누다

캐나다 퀘벡·몬트리올 뉴스그룹 (원문 영어)

몬트리올

황금시대 3년(2006년) 1월부터 몬트리올 센터는 몬트리올·라발(Laval)·롱괴이(Longueuil) 등지에 사는 200만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

우리가 배포 활동을 시작한 것은 한겨울이었다. 엄동설한에 밖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잡한 지하철역과 쇼핑몰 입구, 관공서 건물, 대학 정문 안과 대학 도서관을 목표로 정해서 배포하는 한편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로 출발하는 기차와 버스 역에서도 전단을 배포함으로써 전단을 받은 사람들이 도착지로 이 메시지를 가져가길 희망했다.



1월에는 중국과 어울락의 신년 축제에서 신의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잡았고, 2월과 3월에는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수들이 용감하게 추위를 뚫고 밖으로 나가 우편함에 전단을 넣었다. 스승님께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돌봐주셨다. 우리에게 정신적 격려가 필요할 때면 채식주의자들이나 다른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는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끼곤 우리는 때로 조용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월 24일은 퀘벡(Quebec)의 ‘성(聖) 세례자 요한의 날 (Saint-Jean Baptiste Day)’이다. 이날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휴일로서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된다. 화창한 이날, 동수들은 몬트리올 시내에서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했다. 배포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많은 사람이 전단에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관심을 보였다.

자이나교를 믿는 한 인도인 가족은 채식주의를 장려하는 우리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놀랍게도, 10대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전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 신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매우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했는데 사실 그에게는 전단만 있으면 됐다. 전단에 나온 웹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대안적인 삶’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 메시지를 부지런히 나누라는 스승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각 언어로 된 전단을 전부 합쳐 6만 장 넘게 배포했는데, 주로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것들이었고 중국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어울락어로 된 것도 있었다. 중국어와 어울락어로 인쇄된 전단이 적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중국어와 어울락어로 된 지역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실었다.

『도이 모이(Thoi Moi)』라는 어울락 주간 잡지는 전단의 내용을 보고선 그 이로움을 인정해 무료로 두 번이나 실어 주기도 했다!



퀘백

퀘백 동수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었다. 우리는 이 숭고한 생활 방식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두 달 만에 퀘백 시 전체와 주택지에 2만 장이 넘는 전단을 배포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흔쾌히 전단을 받았으며 미소로써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는 또한 이 자비의 메시지를 나눌 보다 많은 기회와 모임을 계속 찾아서 인류와 동물 친구들 간의 사랑과 하나되는 정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독일

월드컵과 비폭력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다

뒤스부르크 뉴스그룹 (원문 독일어, 영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로서 전세계 각지의 축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구 팬들을 끌어 모은다.

2006년 월드컵 경기가 독일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안 독일과 미국 동수들은 신속히 독일어·스페인어·영어로 된 전단을 준비하고 여러 도시에 예정된 경기 일정에 맞추어 각국에서 온 관중들을 맞이할 배포 계획을 세웠다.

스포츠 행사는 채식주의와 동떨어진 듯해서 활동적인 축구 팬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할지 의문이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받아 읽었으며 그 중 일부는 '대안적인 삶' 메시지에 동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보고 이끌려 와서는 호기심에 전단을 집어갔다. 한 청년은 전단을 읽고 난 후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를 도와 전단을 배포하고 사람들에게 채식에 대해 홍보했다.

뮌헨 경기장 밖에서 전단을 배포할 때 채식을 하는 브라질과 프랑스에서 온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방식을 알리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다. 그들은 우리 활동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했으며, 채식 음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앞으로는 전세계에 채식 식당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경기 내내 이루어진 배포 활동은 6월부터 7월까지 약 25일 동안 계속되었고, 우리는 거의 설 새 없이 10여 곳이 넘는 도시를 순회하며 축구 팬, 지역 주민, 외국 관광객, 경찰과 기타 관련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자동차와 자전거에 전단을 끼워 놓거나 우체통 안에 넣는 식으로 6만 5천 장이 넘는 전단을 배포했다. 놀랍게도 그 동안 우리 중 누구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모두들 마음속에는 끝없는 축복과 기쁨,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영예로운 느낌만 충만했다. 

월드컵 배포 활동



동물 권리와 상응하는 '대안적인 삶'

7월 29일, 폴란드·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온 동물 권리 단체들의 회원들이 독일 뒤셀도르프(Dusseldorf)에서 '동물 도살을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독일 동수들도 이 행사에 동참해 스승님의 소중한 메시지인 ‘대안적인 삶’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몰랐지만, 전단을 읽고 우리 활동의 목적을 알고 난 후에는 바로 우리를 인정하고 한 가족처럼 함께 일했다.

정오에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큰 확성기로 채식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렸고 ‘죽이지 말지어다에는 동물도 포함된다!’, ‘채식으로 생명을 구하라’ 등이 적힌 여러 대형 포스터와 현수막이 채식주의를 지지했다. 퍼레이드는 중심가를 따라 강둑 근처의 작은 광장까지 이어졌다. 그곳에서 주최측은 동물들이 사육되고 도살되는 잔인한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성토했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동물에 대한 비폭력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유명 가수들도 동물권리와 관련된 사랑이 넘치는 노래 공연을 펼쳤다.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조화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많은 인파가 몰렸다. 행사 동안 동수들은 다른 평화 단체 회원들을 알게 되어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정보도 얻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쇼핑 센터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자동차와 자전거에 전단을 놓아두었으며 경찰들에게도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이번 권리 보호에 대한 많은 사람의 커다란 호응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다. 🌸

일본

채식을 유행시키다

군마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군마 동수들은 교도소·병원·고등학교·불꽃 축제·주택 단지를 찾아다니며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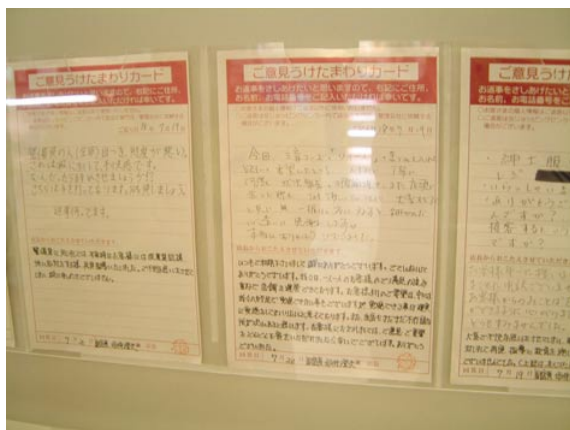
‘대안적인 삶’ 전단을 꾸준히 배포해 왔다. 얼마 전 유례 없는 폭우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지만 우리는 비옷을 입고 산에 올라 산비탈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주택지에 전단을 나눠 주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군마 센터는 전화 홍보 활동도 시작했다. 식료품 공급업자·슈퍼마켓·식당·휴양지·공항·항공사 등에 전화를 해서 채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에게 상품 원재료명의 자세한 표

기, 채식주의자들의 편의 고려, 신상품 개발, 채식 상품 판매망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 기관에 식료품 재료명 표기를 개선하고 식료품 공급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슈퍼마켓에는 전화 홍보와 함께 건의함에 채식 상품 판매를 요청하는 편지도 투서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3개월이 지나자 많은 응답과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책을 내 놓은 곳은 일본에서 가장 큰 휴양 센터였다. 그들은 휴양 센터 내에 있는 모든 식당의 메뉴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후 우리에게 채식 메뉴의 유무 상황과 제공 가능한 범위를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알려 왔다. 과거에는 채식주의자나 특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종종 망설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개선되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점도 채식 식품 판매 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동수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료품 공급업자들과 협상을 했다. 또한 그 외의 대형 슈퍼마켓들도 동수들이 추천한 채식 품목들을 팔기 시작했다. 점장과 부점장, 식품 감독관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식당도 응답을 보내 왔다. “채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분명히 채식 메뉴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식료품 공급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의 상세 성분 표기와 채식 신상품 개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미 채식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회사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답신을 보내면서 채식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자비심과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채식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자 하는 바람을 표했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한 후로 사람들의 의식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이 느껴졌고 기업계의 경영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우수 기업들은 세심하게 고객의 요구에 호응하는 선구적 기업이 되기 위해 열성을 보이고 있기에 일반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많은 대형 마트들이 채식 상품을 팔면 대형 식료품 업자들은 이런 채식 상품을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 또한 채식이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될 것이다. 특히 채식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채식하는 게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채식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구미가 당겨 말할지도 모른다.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현재 군마 센터 부근의 슈퍼마켓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일본 전체로 퍼져 나가고 있다. 슈퍼마켓 직원들까지도 이 믿기 힘든 채식주의 추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물질은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고 애쓰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에게서 비롯된 사랑인 것이다. 

중국 본토

신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다

중국 본토 동수들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로, 신의 위대한 사랑이 세계 곳곳에 쏟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한 나라로서 인구가 많은 중국의 영성 또한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몇몇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 소식을 다음 글을 통해 모든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부터 중국 동북 지역과 북부 중심 지역의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수백만 부 배포함으로써 이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했다. 동수들은 각종 신문 및 잡지 광고를 싣고 온갖 전시회에 적극적 참여하는 등 머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리를 맞대고 짜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다른 지역의 동수들은 살고 있는 도시와 교외의 거의 모든 거리를 돌면서 많은 전단을 배포했으며, 현재는 범위를 넓혀 부근의 읍과 소도시에도 전단을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어느 날 동수들은 1,500부의 전단을 준비해 가까운 군에 가서 배포를 시작했다. 동수들은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외에 주민

의 허락을 받은 후 많은 상점에 전단을 비치해 두어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사람들은 동수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어디를 가든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고 몇몇은 전단을 받고 그 내용을 크게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동수들은 그 지역의 채소 시장에도 찾아가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농촌에서 뇌졸중·심장 질환·고혈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동물성 지방과 육류를 섭취한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부들이 건강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동수들은 그들에게 식습관을 바꿔 채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시장에는 돼지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그들의 장사에 매우 상반되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열린 시각으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렸다가 전단을 받고선 바로 읽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크게 소리내어 읽었는데 매우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신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손으로 신의 축복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몇몇 동수들은 늘 '대안적인 삶' 전단을 갖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닿는 대로 나눠 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장 보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멋진 의미가 되었고 배포 과정에서 가슴 훈훈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번은 버스를 탄 젊은 부부가 '대안적인 삶'을 받아 주의 깊게 읽고선 마치 홍보라도 하듯 큰소리로 토론을 벌이다 결국에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것인지로 이야기가 넘어갔다. 채식의 개념이 그토록 빨리 사람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순수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작용하는 신의 힘에 정말 감사드렸다.

중국 서부 지역에도 ‘대안적인 삶’ 전단이 광범위하게 배포

되었다. 한 도시에 도착한 동수들은 그 지역민들의 영성 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이 앞 다투어 ‘대안적인 삶’ 전단을 요구했으며 동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이들은 왜 안 주냐며 불평을 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곳이 농촌 도시였기에 나이가 많은 농부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동수들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전단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날 도시 전체가 채식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몇몇 사람들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며 우리에게 영성 서적을 줄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 사람은 수행을 위해서 3년 동안 채식을 했지만 그 수행법으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해 나중엔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읽고 다시 희망을 되찾곤 연락처를 주며 연락을 주길 희망했다.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처럼 환영받는 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큰 힘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도시들에도 계속해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열 명의 동수들은 또 다른 두 도시에 가서 배포를 시작했다. 중간에 장애가 좀 있긴 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지구상에 화현하셔서,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켜 주시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는 신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온 세상엔 단 한 분의 스승으로 충분하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질문: 왜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고 가르침을 나누는 스승들이 많을까요?

스승님: 글썄요. 신이 자비롭기 때문이겠지요. 또 오늘날의 통신 체계가 매우 효율적이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좀더 문명화되어서 오늘날에는 영적 스승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 더 이상 살해당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좀더 자유롭게 진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스승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요.

나는 천국의 모든 스승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세상엔 단 한 명의 스승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꼭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을 입문시킬 수 있으니까요. 스승이 오는 것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뿐입니다. 그 밖에 스승에게서 깨달음을 얻는 힘을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살아 있는 스승께 입문하고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89. 3. 1. 포모사 타이난 (원문 중국어) (MP3-CL05)


질문 :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에는 “도살하던 칼을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불은 성불하기 위해 3겁을 수행해야 했습니까? 이 부분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건가요?

스승님: 그건 우리가 부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살하던 칼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성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처를 찾지 못하면 백 번을 내려놓아도 소용없습니다! 도살 칼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없으니 도살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 말



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을 만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도살하던 칼을 내려놓으면, 깨달은 스승이 우리의 업장과 죄를 씻어줄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성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게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3겁이 아니라 수백 수천 겁을 수행해도 성불하지 못할 겁니다! 3겁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을 찾아야만 모든 죄가 지워질 수 있고 곧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은 큰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몇 겁을 수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아마도 3겁의 세월 동안 깨달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성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 입문하지 않으면 해탈하고 성불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스승님: 해탈은 가능하지만 성불은 매우 어렵습니다.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성불의 단계가 어떤 건지 모르며, 매일 어떻게 자신의 불성을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를 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달은 스승을 만났는데, 입문을 하지는 않고 그저 스승을 좋아하고 마음으로 숭배하며 내면으로 스승과 소통한다고 하면 이렇게만 해도 해탈합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비공식적인 입문인 셈이지요. 공식적인 입문이란 스승을 따라 배우는 걸 의미하며, 그렇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가 입문한 경우 그들로 인해 해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각 개인의 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종교·자비

질문: 과학자들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발명하는 것도 일종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같은 것입니까? 과학이 정말 인류를 돌볼 수 있습니까?

스승님: 과학은 물질적 측면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에게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 후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 단체가 사람들에게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단체들은 이론만을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와 같은 것들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을 돌봐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속세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고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수행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진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아직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과학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종교인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 과학자들은 호기심에서나, 단순히 그 일이 좋아서 뭔가를 발명하기도 합니다. 꼭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발명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비심과 박애 정신에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 일합니다. 따라서 그 둘은 그다지 같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전쟁을 막는 최상의 방책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질문: 스승님께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여러분이 더 많이 명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신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나는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세계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만이 무지를 없앨 수 있으며, 신의 사랑만이 증오를 없앨 수 있고, 진정한 형제애만이 형제자매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 모두가 3차 대전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면 이 행성에 신의 사랑을 가져올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신을 깨닫고 이 행성에 신의 사랑과 천국을 가져옵시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또는 천국으로부터 어떤 보답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해 세계가 평화로워지길 기원할 뿐이지요. 이를 위해 나는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평화를 가져오는 데 씁니다. 살생용 무기를 만드는 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약점과 에고, 나쁜 성향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값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유고슬라비아의 영혼들과 무력 분쟁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유럽에 와서 유럽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 영혼에게 이런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동수들의 애정 어린 요청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연락을 취해 같은 시간에 함께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좀더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져오고자 나를 이곳으로 초청했습니다. 거의 간청하다시피 했지요. 그래서 내가 온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선의(善意)와 나의 선의가 우리 가슴에서 비롯된 침묵의 기도, 강력한 수행의 힘과 합해져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3차 대



전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3차 대전이 걱정된다면, 뭔가를 하십시오! 행동을 취하세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의 사랑으로 싸우고, 영적인 힘으로 싸우며, 집안 한구석에서 소리 없이 노력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시오. 다시 말하면 입문하고, 명상하고, 신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행성의 역사를 바꾸십시오. 🌸

영적인 지혜는 세속적인 지력을 훨씬 능가한다

청하이 무상사/ 1989. 2. 25. 포모사 종리 (원문 중국어) (MP3-CL04)

질문: 스승님, 수행을 통해 개발된 지혜와 과학자들의 지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는 미적분을 하거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스승님: 부처가 미적분을 해서 뭐 하세요? 이런 속세에서나 그런 장난감이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아스트랄계를 졸업하지 못한 낙제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요. 오늘날의 우주선이 어디를 갈 수 있나요? 그토록 많은 돈을 쓰고도 고작 달에 가서 돌덩어리 몇 개나 가져와 보여 줍니다. 하지만 부처는 돈 한 톨 들이지 않고도 무수히 많은 보석으로 가득 찬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석이 이곳의 돌처럼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부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서 순식간에 정토에 도착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최소한 이 세속의 수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지요. 제일 빠른 비행기로도 포모사에서 미국까지 최소한 열 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유체 이탈로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경지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들은 찰나에 정토에 갔다가 찰나에 다시 돌아옵니다. 것처럼 빠르지 않던가요? (대중 박수)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나 관음보살처럼 진리를 얻은 대수행자들은 천백억 화신을 나눌 수 있고 무소부재하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화신이 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미국에 있는 나의 제자가 어려움에 처해 나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 화신이 그 즉시 그에게로 갑니다. 아니,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학으로는 부처의 속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처는 동시에 어떤 곳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정토에도 있고, 미국이나 독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도 빠르고 UFO보다도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과학자가 도를 얻은 사람에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빠른 운송 수단을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외계인의 비행접시조차 도를 얻은 수행자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의 지혜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과학은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영적 깨달음이 허상의 체험보다 낫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5.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4)



질문: 저는 아마존 밀림에서 자라나는 아야와스카 (Ayahuasca)라는 특별한 식물을 이용해서 만물 동일체의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가와는 상관없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금지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스승님: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수단으로 얻은 체험은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으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신은 자신이 원할 때 깨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영적 깨달음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며,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더 총명하며 더 만족스럽게 만들고 여러 면에서 더 성공하게 하며 여러분을 더 고귀하고 사랑이 넘치게 만듦 뿐입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마약을 통해 얻은 환상은 모두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하며 지성을 감퇴시키고 지력(智力)과 육체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후 마약이 없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것들은 멀리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상이 아닌 진실한 체험을 얻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수양한 후에야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

포모사 권 사저/ (원문 중국어)

내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자녀와 자신의 성장을 돕는 법’이라는 학부모 교육 안내장을 집에 가져 왔다. 그 핵심 내용은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부모는 항상 자신의 기분을 잘 관찰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성 지수(EQ)’가 높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안내장을 읽은 후 나는 그 내용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부모가 스스로 수양해야 지혜와 자비심을 키울 수 있으며 정서도 안정되어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인도할 수 있고 수행에 대해 일깨워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들이 스승님께 입문하여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수행을 하고 올바른 개념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아 부모를 본보기로 따를 것이다.


다음날 단체 명상에 갔을 때 스승님의 런던 강연이 나왔다. 마침 똑같은 주제를 다룬 내용이 었다. 즉 아이들을 교육하는 법과 그들의 성장기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큰딸에게 이 안내장을 만든 선생님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알려 주기 위해 신이 보낸 신의 사랑의 천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번은 입문하지 않은 둘째 딸이 여섯 살 된 외손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딸로부터 그 녀석이 아주 장난이 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길 듣곤 했었는데, 내가 스승님의 비디오 ‘진정한 영웅’을 보여 주자 외손자는 그것을 조용히 앉아서 반복해서 보았다. 그리고 나에게 그 비디오 내용이 무척 맘에 든다고 말했다. 사위가 데리러 왔지만 외손자는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에게 이 비디오를 소개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이 비디오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큰딸이 농담 삼아 그에게 물었다. “그럼 너 앞으로 감히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겠니?”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지옥에 있는 소의 왕이 자기를 잡아 갈 테니 감히 못 먹을 거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은 매우 순진하고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부모들이 좋은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들도 긍정적이고 자비롭게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꾸짖거나 때리기만 한다면 겉으로는 말을 들어도 속으로는 듣지 않을 것이며 부모



와 사이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 줌으로써 버릇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에 나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야단치곤 했지만 스승님의 강연을 들은 후부터는 사랑과 설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사랑은 비디오와 사진, 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이 넘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부모들이 바른 개념을 가진다면 아이들은 이를 받아들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스승님의 일에 참여한 후 거듭난 탕아

포모사 타이중 뉴스그룹 인터뷰 · 보도 (원문 중국어)

16살인 샤오룽(가명)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술 관련 회사에서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체계와 부모의 높은 기대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온 데다 반항기를 겪고 있던 터에 샤오룽은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 부모와의 관계 또한 악화되어 결국 그는 집을 나왔다. 그의 부모와 고모들은 매우 좌불안석하며 걱정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샤오룽은 친구의 소개로 옌 사저의 집에 일하러 왔다. 처음 왔을 때 그의 눈은 멍해 보였고 걸을 때도 몸을 흔들며 걸었으며 항상 고개를 떨구고 뭘 물어도 항상 “몰라요.”라고만 대답했다. 옌 사저의 남편이 음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오룽은 그곳에 머물며 아주 편안해했다. 가끔씩 몰래 인터넷 카페에 혼자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게임에 빠지곤 했지만 말이다. 또 그는 부모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숨어 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옌 사저는 그를 친구로 대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도 하고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며 부드럽고 강한 방법을 같이 사용했고 심지어는 ‘몰라요’라는 재미있는 댄스 음악을 만들어 샤오룽에게서 보기 드문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최근 동수들이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각지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을 전개하자 옌 사저는 운동이라는 핑계로 그를 데리고 나가 우편함에 전단도 넣었다. 반 년 정도 지나자 샤오룽은 점차 활발해졌고 얼굴에 웃음도 많아졌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다른 학교에 들어가 음악을 전공하기로 동의하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옌 사저 자매는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문을 닫고 반항적이었던 샤오룽이 스승님의 일에 참여하고 옌 사저와 함께 채식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회상했다. 사저들은 그가 다시 정상적인 가정 생활로 돌아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그의 미래가 더욱 아름다워지길 조용히 기도했다. 





등굣따라 이해 수준도 다르다

칭하이 무상사/ 1994. 6. 5.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34

선(禪)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일본의 어떤 절에 두 승려가 살았습니다. 선배 스님은 아주 총명하고 많이 깨달았고 위엄이 있고 잘생겼는데, 후배 스님은 좀 못생긴 데다 눈이 하나였고 멍청했어요. 아마 아수라 수준 정도였을 겁니다.

한번은 선배 스님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쉬고 명상하러 들어가면서 애꾸눈 후배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태양장’ 도장을 돌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멀리서 한 스님이 절을 찾아 왔습니다. 그는 만행 중이었는데, 채식 공양을 원했고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죠. 이 후배 스님은 1세계 아수라 세계밖에 안 되고 대단치도 않았지만 규칙에 따라 방문한 스님을 시험하고 싶어했습니다. 주지처럼 행동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으니까요! 선배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스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그는 노란 천으로 덮인 탁자에 앉고는 그 스님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했어요. (스승과 대중 웃음) 그러곤 물었죠. “어디에서 왔소?” 손님은 대

답했어요. “도쿄에서 왔는데,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습니다. 내일은 장례식에 가야해서 서둘러 떠나야 합니다.”

후배 스님은 말했어요. “환영하오!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원하는 만큼 머물도록 해주겠소.” 도쿄에서 온 스님은 말했어요. “물론이지요! 그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든 물어 보시지요!” 그 후배 스님은 뭘 물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은 말이 필요 없다는 방식을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지고 말 거야. 대답이 옳고 그른지는 순전히 나한테 달렸으니까 그의 대답은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들 사이에 말 없는 문답이 끝난 후, 방문한 승려는 선배 스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와! 전 가야겠어요. 제가 졌습니다. 작별 인사나 하러 온 겁니다. 스님 후배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스님에게 배울 수 없다니 말이지요. 후배가 그처럼 대단하니 스

님은 분명 더 대단하겠지요! 안타깝게도 저는 바람에 규정대로 떠나게 됐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난 고참 승려가 물었어요. “무슨 문답을 주고받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질 수가 있지요?” 그 승려는 말했어요. “그는 나에게 먼저 표현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에게 손가락 하나를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존귀한 유일한 분, 즉 부처님, 완전히 깨달은 분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 즉시 스님 후배가 손가락 두 개를 내밀었습니다. (대중 웃음) 전 지고 말았죠! 그가 뜻한 바를 알았으니까요. 그건 부처가 나가서 설법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펴지 않은 채 앉아 있기만 하면 쓸모 없다는 뜻이었죠. 부처와 그 가르침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진 거죠. 정말 그에게 탄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한번 이겨 보려고 손가락을 세 개 이렇게 들었어요. (대중 웃음) 불·법·승이 하나여야 완전해진다는 뜻이었지요. 말하자면 여럿이 함께 살아도 승단은 하나처럼 조화롭고, 부처는 유일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그의 가르침 역시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전 그에게 불·법·승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손가락을 세 개 보여 주었습니다.

오! 그러자 그 스님은 즉시 주먹을 쥐고 제 코를 쳤어요. (대중 웃음) 거의 맞을 뻔했지요! 그건 이미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스승님 웃으심, 대중 웃음) 그가 뜻한 것은 불·법·승은 사람들을 일세해탈 시키지만 이 ‘즉각적인 깨달음’이 훨씬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한 대 때리기만 해도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전 감당이 안 돼서 즉시 스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사과를 드리고 감탄을 표하고 바로 떠나려고요.”

손님이었던 스님이 떠나고 난 뒤 후배 스님이 뒤에서 혈레벌벌 뛰어와 선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도쿄에서 온 스님,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갔지요?” 그 선배가 대답했죠. “자네한테 저서 떠났는데, 자

네 정말 대단하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높이 깨달았는지 몰랐네! 정말 미안하네. 그동안 자네를 무시했는데 지금에서야 자네가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 “제가 이기다니요? 그를 때려 주려고 했더니 바로 도망갔는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선배가 물었지요. “왜 그를 때리려고 했지? 그는 자네에게 졌다고 하던데, 왜 그를 때리려고 했나? 어떤 문답을 했는지 말해 보게.” 이에 후배가 대답했지요. “그 스님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제게 도전해 왔어요. 제가 애꾸눈인 걸 보곤 저를 놀렸다고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는 즉시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제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선배가 사람들이 저를 때리거나 욕해도 참고 인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했습니다. 전 스님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모욕을 견뎌지요. 부처님께서 복수하지 말고 자비로써 원한을 갚으라고 하신 것도 기억해서 저는 화도 내지 않고 그에게 욕설로 되갚아 주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당신은 눈이 두 개니 정말 복 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래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봐 주니까 계속 저를 모욕했습니다.”

선배가 물었지요. “어떻게 모욕했던 말인가? 그는 승려인데 어떻게 자네를 모욕할 수 있겠나?” 그러나 후배 승려가 대꾸했어요. “제게 손가락 세 개를 보여 주더군요. 그건 우리 두 사람의 눈을 합쳐 봐야 세 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스승님과 대중 웃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먹으로 한 대 치려고 했더니 잘도 도망치더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래서 그 뒤를 쫓아온 겁니다. 운 좋게 잘도 튀었군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한테 몇 방 먹었을 텐데!”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 승려가 도망가 버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할 이야기가 더 있었을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여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4. 6. 5.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34

이건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 진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 웃어 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해석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요. 내가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한 가지 면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면들도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스로 해석해 봐야 합니다. 각자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도 다르지요.

이 이야기는 수행의 등급이 다르면 이해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순하고 긍정적이면 모든 것을 긍정적이며 편안하고 아름답게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부정적이면 무엇을 보든 나쁘겠지요.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면을 보고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수행을 하고 나면 지혜가 계발되고 생각이 넓어지며 사물의 보는 관점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이지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오해하지 않고 환상에 의해 미혹되거나 속아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개념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간 수행을 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고통이 없진 않겠지만 흉악한 마음이나 원한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과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지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것을 가져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새옹지마’ 이야기를 읽는다 해도, 혹은 다른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치를 알 만큼 알고 있지만 매일 고요하게 명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를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응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읽고, 그러고 나선 잊어버리지요.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뿐입니다.

수행을 한 후에는 이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처럼 정욕이나 명예, 명성에 빠지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동요시키거나 얹어매지 못합니다. 우린 아이를 낳아 대를 잇고 자기 의무를 다하며 때론 몸의 요구를 채워 주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의사 개들이 재롱을 부리며 노인들
의 생활에 웃음을 가져다 준다.



‘의사 개’가 요양원에 웃음을 가져오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최근 ‘동물 보조 치료법’이 인기 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자격 요건을 갖춘 동물들을 매개체로 하여 환자들의 신체적·사회적·감정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키는 치료법을 말한다. 많은 질병이 정신적 영향에서 비롯되는데, 동물들은 환자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이완되도록 도울 수 있다. 영국과 호주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 보조 치료법’은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질병에서 파생된 고통을 잊고 외로움을 경감시키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천 사저는 이전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 인턴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요양원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의사 개’들이 방문했었다. 잘 훈련된 이 개들은 노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개들을 보고 매우 즐거워했다. 그 중 골든하운드 종인 ‘부부(Bubu)’라는 1살도 안 된 개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귀엽게 앞다리를 꼬기도 하고 죽은 척하기도 하면서 온갖 자세를 취하고 노인의 부름에 바로바로 반응하곤 했다. 치매환자한테 가서 달라붙으라고 지시하면 ‘부부’는 소리 없이 노인의 무릎 위로 올라가 그들이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재미있는 모습은 종종 노인들이 웃음을 터트리게 만들기도 했다.

버디(Buddy)는 원래 외눈박이 떠돌이 개였는데, 입양되어 치료견으로 훈련받았다. 떠돌이 개가 훗날 사려 깊고 사랑스런 ‘의사 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그는 착하고 말을 잘 듣고 노인들이 손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털을 빗기고 개 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착하게 몸을 맡기고 노인들이 던진 공을 쫓아가 물어 오기도 한다.

개 주인들은 봉사를 나온 날엔 치료견들이 항상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들은 도착하면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활기를 전한다. 천 사저는 치료견들이 노인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간호 조무사의 격려를 받아 ‘의사 개’의 털을 빗기고 있다.

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러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 믿었다.

“선생님, 제 환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천 사저는 간호 조무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의사 개’가 활동을 시작하자 카이치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원래 말도 없는 분인데, ‘의사 개’를 보시곤 말을 거셨어요.” 천 사저도 이 일에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이치 할머니를 안 지 4, 5개월 됐지만 치매에 걸린 이 할머니는 평소 크게 소리내어 웃을 때를 빼곤 한 마디도 말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개가 치료하는 동안 할머니는 끊임없이 웃었을 뿐 아니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고 말을 되풀이했다. 간호 조무사들은 이것을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들은 이 치료가 노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몰 증후군’에 걸린 노인들이 유난히 평온해져 소란도 피우지 않고 밤에도 별일 없이 잘 잔다고 말했다.

‘의사 개’들과의 경험을 통해 천 사저는 동물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친구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들은 지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 친구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서 지구가 사랑의 천국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

서로 다른 종족의 동물 친구들이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

포모사 아선 사형 (원문 중국어)

족제비에 대한 고양이의 모성에



고양이 엄마에게 뽀뽀하는 아기 족제비.

중국에 사는 왕 씨 가족은 흰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다.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임신한 몸으로 밖에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정오가



갓난 새끼 고양이들과 장난치고 있는 새끼 족제비.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새끼 족제비를 데리고 왔다! 놀랍게도 이 흰 고양이는 족제비를 자기 자식인 양 돌보았다. 족제비는 항상 고양이의 품을 파고들었고, 어미 고양이는 늘 다리로 족제비를 끌어안았다. 이 ‘모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들 후, 하얀 고양이가 5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낳고 명실상부한 엄마가 되었다. 그래도 어미 고양이와 족제비의 관계는 변치 않았다. 흰 고양이는 매일 족제비를 부드럽게 핥아 주었고, 족제비도 다른 아기 고양이들과 잘 어울려 그들 모두 어미 고양이 위에서 장난치며 놀았다.

족제비는 원래 매우 사나운 육식동물이지만 이 새끼 족제비는 오이와 수박, 호빵만 먹으며, 특히 오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한다.



새끼 족제비와 엄마 고양이.



귀여운 새끼 족제비.

검은 고양이에게 모성애를 베푼 개

포모사 신주에서도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버림받은 떠돌이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발견한 한 남자가 고양이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해 자비롭게 고양이들을 입양하였다. 처음에는 분유를 먹였지만 겨우 눈만 뜬 새끼 고양이들은 스스로 우유를 먹지 못했다. 주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최근 새끼를 낳은 어미 개를 고양이들의 유모로 데려왔다. 그가 데려온 어미 개는 기대 이상이었다. 새끼 고양이들에게 아무런 적의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은 기운차게 어미 개의 젖을 빨았고 잠시도 그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 사랑 많은 어미 개 역시 원래는 집 없는 개였지만 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입양되어 최근에 새끼를 낳은 티였다.

길 잃은 멧돼지가 개를 엄마로 따른다

포모사 이란 현에 사는 이 씨 가족은 5년 넘게 샤오웨이라는 검은 암개를 길러 왔다. 이 씨



는 문 앞 공터에 개집을 지어 주었는데 며칠 전 생각지도 않은 멧돼지 한 마리가 개집에 있는 걸 발견했다. 배가 고팠는지 이 어린 멧돼지는 샤오웨이의 젖을 빨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 계속 울어대고 있었다. 이를 본 샤오웨이는 달래 주듯 새끼 멧돼지의 머리를 입으로 부드럽게 핥아 주었다. 샤오웨이는 새끼 멧돼지가 개집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밤새 돌봐 주었고 집 밖에 나가 개집을 지켰다.

더 흥미로운 것은 샤오웨이가 어딜 가든 이 새끼 멧돼지가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가끔 어미 개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움을 청하며 울기도 하는데, 그러면 개는 바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고 기다려 주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런 훈훈하고 재미있는 광경에 모두 미소를 짓곤 한다. 🌸

스승님의 농담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5

한 영업사원이 사장한테 보고하러 왔습니다. 사장이 물었지요. “이봐! 자네, 판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영업사원은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50% 되는 손님들이 우리 상품을 샀는걸요!”

그래서 사장이 물었죠, “그래? 몇 사람이나 있었는데?”

사원이 말했어요. “두 명이요!”

“그런데 50%라고 말하지 않았나?”

“예, 거의 50%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중 한 사람이 우리 물건을 살 뻔했거든요!”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73/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73/jk1.htm>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을 걷다

한국 부산 김 사형 구술/
한국 부산 뉴스그룹 기록 (원문 한국어)

김 사형은 15살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다 나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인도해 줄 바른 길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다 보니 세상이 그를 보는 시각도 곱지 않았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소매치기하는 법을 배워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소매치기와 폭력, 마약 등의 혐의로 수차례 감옥과 사회를 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35세에 다시 붙잡혀 9년형을 선고받는 순간, 김 사형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너무나 괴로웠다. 그에게는 교도소가 익숙한 장소였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요령도 알고 있어서 몇 년을 지낸다 해도 두렵지 않았지만 가족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회한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자신의 지나간 시간과 잘못된 행위들을 되돌아보며 통한의 반성을 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낸 뒤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김 사형은 각 종교의 경전과 철학 서적들을 공부하며 삶의 지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한 불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중 한 스님이 관음법문을 소개하며 청하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그 때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자막이 보이지 않아 스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스승님을 보고 무척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스승님의 모습 속에서 문득 ‘저분은 예수나 석가모니불 같이 크게 깨달은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청하이 스승님과 그분의 법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낀 그는 행사 후 그 스님들이 남겨 둔 책을 빌려 보았다. 제2권까지 읽어 본 후,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읽어 온 다른 경전들과 다를 게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책을 덮고 그 이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러가다 어느 날 친구가 옷과 외모를 정리하며 어딘가로 급하게 가려는 모습을 보고 “자네 어디 선보러 가나?” 하고 농담을 건넸다. 친구는 자신이 교도소 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관음법문 교리반의 일원이며 오늘은 교리반 수업이 있는



날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사형은 크게 놀라며 예전에 본 스승님의 비디오와 책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그 교리반에 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와 함께 가서 명상법을 신청했다.

방편법을 배운 후 그는 아주 좋은 체험을 했고 스승님이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스승님께 완전 입문을 하기 위해 완전 채식을 하고자 애썼다. 교도소의 식단은 밥과 국 한 그릇, 반찬 두 가지가 전부인데, 국과 반찬은 대부분 동물 성분이 들어갔다. 그는 동물 성분이 제일 적게 들어간 반찬을 골라 물에 여러 차례 씻어서 먹으며 몇 년간 최선을 다했다. 그의 수행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채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입문만 할 수 있으면 온 세상을 모두 얻은 느낌일 것 같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3년이나 형이 남아 있었다. 그는 너무나 입문하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절실한 마음으로 스승님께 편지도 썼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치지 못한 그 편지를 쓴 다음날 명상 중에 스승님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자 스승님은 짧게 “입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김 사형은 입문의 체험을 했다. 그 느낌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극히 최근 일이었다.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입문식은 단지 설명을 해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실질적인 입문은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10여 년 전 교도소에서의 그 체험이 스승님이 자신을 입문시키셨던 때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 사형은 매일 스승님을 생각하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계속 스승님의 명호를 외우며 교도소 생활을 해 나갔고 마침내 출소하여 입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문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생계라는 걸림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예전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막일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다시 소매치기와 주식에 손을 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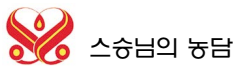
어느 날 센터에 갔는데 스승님의 메시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스승님과 동수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센터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김 사형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깊은 죄책감에 더 이상 센터에 나갈 수 없었다. 소매치기를 하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음에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속으로부터 해방감과 환희심이 느껴졌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다시 교도소로 갔다. 스스로 독방을 신청해 매일 참회하고 명상 수행에 정진했다. 그러던 중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 역시 해탈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선 그가 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수감 기간이 끝나 입문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방편법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이번에는 예전의 실수와 완전히 손을 끊었고 생계를 위해 막일을 하게 되었다.

김 사형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이제 온 세상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빌며 스승님의 홍법과 ‘대안적인 삶’의 보급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동수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해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재소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세속의 물질적인 삶보다도 더욱 중요한 영혼의 해탈과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자 노력한다.

교도소에서 채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김 사형은 자신이 번 돈을 보내 그들이 채식 음식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동수들이 그들을 후원해 주도록 소개해 주고 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동수들의 따스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구·안동·청송·부산 교도소의 재소자들 중 방편법을 배운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소망, 참회에 대한 편지들을 써서 동수들에게 보내 온다. 김 사형은 부산 교도소를 맡고 있는데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이들의 편지를 읽고 진심 어린 답장을 보내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는 김 사형은 하루 빨리 그들이 스승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해탈의 기쁨을 맞이하고 그들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 갇아 주는 달콤한 복수

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5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생일 선물로 물총을 주었어요. 그러자 손자는 물총을 사방에 쏘아대며 잔뜩 물을 튀겨 놓았습니다. 그의 엄마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인 자기 어머니를 무섭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놀랐어요!”

“왜?”

“우리가 물총으로 엄마의 화를 돋았던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할머니가 대꾸했지요. “얘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단다!” 

노인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알리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타이베이 동수들은 스승님의 책과 뉴스잡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무자에 있는 자오루 노인 요양 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요양 센터의 차이인 주임의 요청에 따라 7월 26일에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생활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삼군총병원의 천웨이화 박사가 맡았다. 천 사형은 이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 채식의 이로움과 육식의 해악을 설명했다. 그는 채식, 적당한 운동, 심신 수양 및 명상이라는 건강의 3대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쉬운 일상 용어로 심오한 이론을 설명해 주자 100명이 넘는 노인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나중에 질문도 많이 했다. 그 후 20분 동안 한 사형이 나와서 노인들에게 여덟 단계로 구성된 운동을 가르쳤다. 쉬운 운동이라서 노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으며 기쁜 마음으로 연습했다. 이어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중 질의 응답 부분을 시청했다. 이 비디오 상영을 끝으로 세미나가 끝났는데, 차이 주임은 노인들이 두 시간 넘게 앉아서 비디오 시청을 하는 것을 보고선 다음 기회에는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한 노인이 명상을 배우고 싶어하며 자리에 남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 원기 왕성한 덩 할머니는 걸보기엔 예순이나 일흔 정도 같았는데 알고 보니 84세나 되었다. 문에서 왔다갔다하던 한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같이 방법법을 배웠다. 덩 할머니는 명상을 하고 난 후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할머니



에게 스승님의 불찬 CD를 보내드렸다. 할머니는 전에 불경을 읽곤 했었는데 이젠 스승님의 음성에 따라 불찬을 함께 부른다. 그녀는 스승님의 불찬을 틀어놓고 명상하면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스피커 하나가 망가졌는데도 스승님의 불찬

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매우 기쁘고도 놀라웠다고 알려 주었다.

노인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 타이베이 센터는 7월 29일 요양 센터에서 개최한 생일 파티에 채식 간식 200상자를 준비해서 보냈다. 요양 센터는 자비로운 채식을 홍보하는 동수들의 노력에 부응해 달걀이 안 들어간 생일 케이크 두 개를 주문했다. 동수들이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몇 장 가져 왔더니 차이 주임과 직원들은 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었다. 우리는 DVD ‘진정한 영웅’을 홀에서 자주 상영해 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주방장의 솜씨를 개선하기 위해 채식 요리를 시연할 요리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권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채식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란다.

자오루 요양 센터는 형안 요양 센터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한 형안 네트워크의 린슈사 부원장과 형안의 또 다른 단체인 ‘양밍산 노인 아파트’의 공수잉 주임도 포스터의 내용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각자 사무실에 붙일 포스터를 기쁜 마음으로 가져갔다. 공 주임은 스승님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뉴스잡지를 자세히 읽고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군요!” 하고 탄성을 질렀다. 또한 스승님이 신비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l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ri/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t@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벤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벤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벤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i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tact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코/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샌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iepoeb@sbcbglobal.net

* 켄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클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8@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ماس.com.id

달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달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i@sby.dnet.net.id

요그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t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a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011-599-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산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3929-1859
 청곡/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l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i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기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kss@mptmail.net.mm

★ 네덜: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l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l@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iad@stou.ac.th
 차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vanily@gmail.com
 콘콰/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l@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센터/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rg@gmx.de
 베를린/ Ms. Thi Hoa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l@aol.com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20-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moscowcenter@rambler.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발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l@yahoo.es

★ 스웨덴:
 연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rl@maters19.freeser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트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hotmai.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ansavanh/ 61-8-8332-6192/ leonadelal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isho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 649-277-9285/ takahide@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넵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삶을 살자

건강에 대한 깨달음

-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뤼스홍 박사/ 포모사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신간 서적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출판 전에 보게 된 것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 원문이 들어 있는 전자 파일을 열었을 때, 강렬한 에너지 흐름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다! 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일까? 원고를 몇 차례 되풀이해서 읽으니 해답을 알 것 같았다. 단어 속에, 그리고 행간에 스며 있는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심이 내 영혼을 감동시킨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갑작스런 체험으로 나는 영적인 힘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아직 이 같은 체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상 현대 과학 기술 연구로는 우주의 물리적 현상을 해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근대 의학은 19세기 이후로 미생물학·인체 해부학·생리학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20세기에는 의학 기술이 한층 진보하여 세포·분자 생물학, 리보핵산 단백질과 게놈(DNA)에 관한 생화학, 신진대사 병태생리학에 대한 이해력이 커졌으며 심지어 오늘날에는 실험실 내에서 생명을 복제하고 줄기세포(Stem Cells)와 유전자 요법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손상된 장기를 복구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천년으로 들어선 오늘날에도 의학 전문가들은 일부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현대의학은 아직도 질병을 예방하는 법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읽은 뒤,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계가 자비심과 좀더 넓은 관점에서 그 자체의 모순과

맹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의학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이 책에서는 의학 연구가나 임상 치료 전문가들이 연구해 볼 만한 값진 견해들을 여럿 제시하고 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지혜와 무아의 사랑 또한 의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비춰 주고 있다.

제1장에서는 ‘심신과 영혼의 모든 잠재력을 계발해 우주 에너지의 보고(寶庫)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미 동서양 사회에서 은연중에 형성되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에서 매년 5월에 열리는 ‘심신과 영혼의 엑스포(Body Mind and Spirit Expo)’의 경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제2장 ‘사랑의 음식, 건강한 삶’에서 칭하이 스승님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환경 보호, 기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주제부터 시작하여 애완동물 돌보는 법, 여행할 때 주의할 점 등 실용적인 팁까지 자세히 설명하신다. 유머가 풍부한 스승님의 말씀 중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지혜와 유용한 건강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오늘날 광우병, 구제역, 조류 독감, 중금속이 함유된 해산물, 전세계를 발각 뒤집어놓은 SARS와 같이 박멸해야 하거나 좀더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신이 인간에게 육식을 버리고 자비로운 채식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시는 듯하다. 우리는 모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칭하이 스승님은 올바른 식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간단명료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채식 생활을 강조한다. 또한 단식 요법, 유전 공학, 유기농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과 같은 대중적인 주제들도 다루고 있다.

생로병사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제3장 ‘약 없이 치유하기’에서 칭하이 스승님은 ‘유유상종’의 이치로서 질병의 근원과 치료 방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해주신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정신은 신체의 자기 치유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은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잠재된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 책의 제3장에서 여러 방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의학 전문가들에게 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스승님의 말씀은 현대 의학의 발견과도 꼭 들어맞는다. 한 예로, 최근 어느 연구에서 웃음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이로운 반면 우울증은 내분비계와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심장병과 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제4장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병으로 인한 고통을 대하는 법’에서, 독자들은 칭하이 스승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사랑의 힘을 느끼고 위안을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스승님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낙천적인 태도를 지니는 법과 그에 따름으로써 용기있게 삶을 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신다. 또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신께 자주 기도하기’를 추천하신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고에 있는 ‘신은 나의 빛(Dominus Illumination Mea)’이라는 라틴어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말은 칭하이 스승님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모든 생명들은 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하버드 의대와 펜실베이니아 의대에 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은 명상 클리닉을 개설해 매일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칭하이 스승님이 제공하는 만병통치약인 관음법문은 실로 오늘날 의학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에너지(진동) 치료 의학’으로서, 전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氣)나 경락(經絡)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명상을 통한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제5장 ‘빛과 소리의 자연 치유 명상법’에서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인 제6장 ‘낙관적 견해-지구와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는 세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 준다. 칭하이 무상사의 메시지는 지구와 인류의 복지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새 시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신앙·의학·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엄청난 사회적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로 인류 의식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양자 이론, 인터넷, 나노 기술과 함께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CT Scanner), 자기 공명 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자기 공명 시험기(Magnetic Resonance Tester, MRT) 등과 같은 의학계의 새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과학 분야의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진전들이다. 이는 칭하이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오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일은 가능해집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영적인 힘으로는 모든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수많은 사례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스승님이 발산하는 영적인 힘과 축복을 직접 체험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 인류 전체의 건강과 복지, 행복을 생각하는 모든 독자들이 간절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칭하이 스승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영적 각성을 증진하고 신이 부여하신, 무한하고 내면에 잠재된 자연 치유력을 일깨움으로써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삶을 실현하길 소망한다. 

*뤄스홍(羅時鴻) 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포모사 국방의학원의 약리학과 교수, 국립사범대학의 심신 계발 강좌 강사 겸 지도교수, 국가 응급 재난 의료 구조단 강사이자 고문을 맡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황금시대의 생활 시리즈 (1)


건강에 대한 깨달음

-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중문판)
*영문판 근간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모은 『건강에 대한 깨달음 - 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대부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에 관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실용적이며 완벽하다. 심신과 영혼을 위한 행복에 이르는 관견을 비롯해 동물, 환경 보호, 면역력과 자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전 인류의 복지와 지구의 영속적인 발전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 밖에 황금시대 3년(2006년) 새해를 맞아 육식과 흡연, 음주의 폐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훌륭한 말씀이 특별히 수록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적인 삶' 캠페인의 개괄적인 전망도 담겨 있다.

우리는 현재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으며 의료 기술 또한 진보한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인류는 어째서 아직까지 자연 재해와 질병,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가? 칭하이 무상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간결하고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예방책을 써야 하는 상황과 진정한 만병 통치약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온 가족을 위한 확실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며, 친지들에게는 채식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특히 의학 전문가들이 읽고 숙고해 볼 만한 책이다. 



스승님의 최신 그림



여름
Summer

위 그림은 스승님이 최근 그리신 작품 중 하나로서 현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